

「김만덕 기념 전국 학술세미나」

● 행사명: 김만덕 기념 전국 학술세미나

“김만덕의 시대와 현실”

● 일시: 2005년 7월 9일(토) 15:00

● 장소: 제주 그랜드호텔 2층 제이드룸(Jade Room)

● 주최: (사)김만덕기념사업회

※담당자: 박찬식(016-693-0880), 간사: 조정희(010-9025-2384)

● 취지 및 목적

- 제주여성의 표상인 김만덕 의녀의 업적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발굴하고 재평가하여 제주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 김만덕의 행적과 정신을 현재적 입장에서 재해석하여 오늘을 사는 제주인들의 정신적 기반을 마련한다.
- 김만덕을 테마로 한 문화사업 등 김만덕 정신 계승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한다.

● 프로그램

김만덕 기념 전국 학술세미나: “김만덕의 시대와 현실”			
개회식		15:00-15:10	
기조 강연		15:10-15:30	▲ 강연: 김만덕 기념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김경애(동덕여대 교수, 「여성인물을 화폐에! 시민연대」 대표)
제 1 부	김만덕 삶의 현대적 조명	15:30-16:00	▲ 사회: 허영선 (시인 · 제주구술사연구소 소장) ▲ 발표 “제목 미정”(주제: 김만덕 삶의 현대적 조명) 변종현(제주교대 교수, 김만덕 기념사업회 실행위원)
		16:00-16:30	▲ 토론 현승환(제주교대 교수) 문혜경(제주대 교수)
		16:30-16:40	▲ 방청토론
휴식		16:40-16:50	
제 2 부	김만덕 관련 문화콘텐츠 개발의 의미와 방향	16:50-17:20	▲ 사회: 허영선 (시인 · 제주구술사연구소 소장) ▲ 발표 “김만덕 콘텐츠 개발 방안” 정창권(고려대 교수)
		17:20-17:50	▲ 토론 김재희(애니메이션 작가·「고래만덕」 작가) 김순자(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제주여성사정립분과위원장)
		17:50-18:00	▲ 방청토론
만찬		18:00-19:00	

개 회 사

강 재 업 (김만덕기념사업회 상임공동대표)

존경하는 김태환 도지사님,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성단체장님 여러분, 오늘 자리를 찾아오신 내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에 저희 김만덕기념사업회를 성원해 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고마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김만덕기념사업회는 지난 2003년 11월 발족하여 나름대로 활발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제주를 넘어서서 한국 여성의 상징인 김만덕님의 배품의 정신과 조선시대 여성경제인으로서 역동적이며 진취적 기상을 계승·발전시키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작년에 이어 오늘 두 번째로 학술세미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행사는 김만덕의 행적과 정신을 현재적 입장에서 재해석하여 오늘을 사는 제주인들의 정신적 기반을 확보하고자 마련했습니다. 또한 김만덕을 테마로 한 문화사업 등 김만덕 정신 계승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발

표·토론의 자리를 통해 다양하고도 현실적인 기념사업의 방향이 제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제주를 찾아오신 김경애 교수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은 김만덕 기념사업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김만덕을 한국의 여성상으로 부각시키는 데 노력하고 계십니다.

저희 김만덕기념사업회는 지금까지 자발적인 기금의 마련을 통해 김만덕에 대한 조사·연구와 그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김만덕 학술총서 발간, 만덕묘 성역화사업, ‘화폐인물 수록’ 사업, 김만덕 드라마 제작을 위한 시나리오 공모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사업은 도민 여러분의 뜻을 모아 함께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바쁘신 중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마련한 자리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금 머리 숙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만덕기념사업회의 활동 방향

김경애(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역사 속의 여성인물을 재평가하고 이들을 기리는 사업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기념사업회는 물론 출신 지방자치 단체가 앞장서서 유관순, 신사임당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나혜석, 빙허각 이씨, 허난설헌의 삶을 재조명하고 추모하는 행사를 열고 있다. 여성인물을 화폐에 수록하자는 주장이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여성인물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것과 더불어, 여성인물에 대한 재평가 작업과 행사는 많은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국민들은 이를 통해 역사 속의 여성인물의 업적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김만덕은 역사 속의 여성인물 중 어떠한 인물보다도 많은 업적과 시대를 뛰어넘는 용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져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제주도에서는 누구나 김만덕할머니를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일반 국민들은 김만덕은 생소하기만 하다.

따라서 제주도와 김만덕기념사업회는 지속적으로 김만덕의 업적을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평가 작업을 전개해야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이를 알리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까지 발굴되고 평가된 내용만이라도 국민들에게 알리고 기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국민들에게 김만덕을 알리고 기리는 작업을 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중의 한 방법이 화폐에 김만덕 초상화를 비롯하여 관련 장면을 수록하는 것이다. 그러나 화폐에 수록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

1. 초, 중등 교과서에 김만덕 일대기가 수록되도록 할 것.

초중등교과서는 역사적인 인물을 알리는데 가장 기본적인 매체이다. 신사임당과 유관순 등 극히 소수의 여성만이 교과서에 실리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다양한 여성 위인을 교과서에 수록해야함을 주장하고, 이와 함께 김만덕의 일대기를 수록하는 캠페인과 로비 활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

2. 제주도가 주축이 되어 관광객에게 김만덕의 업적을 홍보할 것.

제주도는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이다.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김만덕에 대해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제주도 안내책자에 김만덕에 대해 수록하고, 제주도 관광지도에 명기하여 이를 무료로 배포하도록 추진해야한다.

3. 김만덕기념관을 재정비하여 관광 코스 (특히 학생 수학여행)로 채택하도록 할 것.

김만덕 기념관을 재정비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관을 만들어 학생들과 일반 관광객들이 즐겨 방문하는 코스로 선정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4. 제주도가 주축이 되어 전국적 규모의 김만덕 축제를 열 것.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장이 배출한 인물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축제의 방식을 적극 채택하고 있다 (강릉:신사임당, 허난설헌, 경기도: 빙허가 이씨, 나혜석). 김만덕은 제주도 지역 뿐 아니라 김만덕이 한양과 금강산을 방문했던 경로를 따라 전국적으로 지역여성단체와 연계하여 축제를 개최하는 것을 제안한다. 최종 기착지는 금강산이 되도록 하며 금강산에서 다양한 행사를 벌이도록 한다. 김만덕상 수여를 금강산에서 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할 것이다.

5. 김만덕상(賞)을 전국 규모로 키울 것.

사회 봉사에 헌신한 제주도 여성을 중심으로 수여되는 상을 김만덕의 업적과 관련된 다양한 방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거나 헌신한 여성에게 상을 수여할 것을 제안한다.

예: -기예에 능한 여성
-사회복지에 헌신한 사람
-여성으로 금기를 깨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사람
-고위 공직자로 사회에 공헌한 사람

김만덕상 수여를 일간지나 방송사, 또는 여성신문 등과 제휴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6. 김만덕 초상화를 다시 제작할 것.

현재 김만덕의 초상화는 수수한 모습이다. 그러나 평상시 검소했던 모습 뿐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제작할 필요가 있다. 당시 여성으로 최고 벼슬이었던 의녀반수의 복장을 한 모습과 기녀로서 아름다운 모습 등 다양하게 제작하여 교과서나 홍보물에 제공하며, 화폐 도안으로 제안할 때 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7. 김만덕 행적과 관련되는 장면을 영상으로 제작할 것.

김만덕을 알리는 작업은 영상시대에 걸맞게 영상으로 제작해야 한다. 유화, 수채화, 만화 등 다양한 영상매체로 김만덕의 행적과 관련된 모습을 제작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면, 한양을 향해 제주도를 떠나는 모습, 금강산에 가마를 타고 가는 모습, 객주집 풍경, 자선을 베푸는 모습, 기녀로서 연회하는 모습 등을 제작하여 기념관에 전시하고, 교과서나 홍보물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제공하며 화폐 도안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8. 김만덕 일대기를 다양하게 제작, 배포할 것.

김만덕 삶을 동화, 소설, 전기 등 다양하게 각색, 편집하여 제작 배포할 것을 제안한다.

9. 텔레비전 드라마화 되도록 노력하고 지원할 것.

텔레비전 드라마의 영향력은 실로 막강하다. 김만덕일대기가 드라마로 제작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제작 시에는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10. 화폐에 수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화폐의 도안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이다. 화폐 도안 개정이나 고액권 발행을 대비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활동을 전개해야할 것이다.

- 출신 국회의원과 여성의원에게 적극 홍보하고 연대할 것.
- 화폐 관련 공청회에 대거 참여할 것.
- 언론을 통한 홍보활동 강화할 것 (축제에 중앙 언론사의 기자 초청 등).
-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한국은행에 전달할 것.

김만덕의 삶을 통해 본 정신적 가치의 탐색¹⁾

변중헌(제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1. 김만덕 연구의 의의

여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21세기 패러다임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무시되거나 제대로 평가되지 못해 온 여성들의 삶에 대한 온정적 배려나 잃어버린 인류의 반쪽에 대한 연민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여성에 대한 관심과 조명이 단지 그들만의 이야기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점에서 역사와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근본적인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내지 당위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조명은 새로운 접근이기보다는 오히려 당연한 것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우리 사회는 여성 운동의 비약적인 발전과 여성주의의 확산으로 여성의 권리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21세기 여성의 시대에 걸맞게 그 동안 금기시되어 왔던 여성의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는 가운데, 여성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 그리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에 관한 기대와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근간을 형성해 온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 부당하게 취급되었거나 아니면 애써 무시되어 온 여성에 대한 재조명과 여성의 권리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성 인물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접근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의 과거 속에 잊혀져 있던 그러나 주어진 운명과 사회에 맞서 치열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아를 실현하고자 했던 많은 여성 인물에 대한 발굴과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에 대한 지금까지의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바로잡고 여성을 올바르게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의 표

1) 위의 발표문은 <의녀 김만덕 활약상 자료조사 연구보고서>(제주도, 2004년 11월)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출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다시금 활기를 띠고 있는 제주 여인 김만덕에 대한 다양한 관심과 연구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역사적 인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지극히 제한된 지면의 사료나 일차 자료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평가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만덕(1739-1812)에 관한 공식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정조실록」(정조 20년 11월 25일조), 「승정원일기」(정조 20년 11월 24일조)등에 나타난 내용은 만덕이 기녀 출신으로 큰 재산가가 되었고, 갑인 을묘년 대기근 때 쌀을 사들여 진휼했고, 출륙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정조를 알현하고 금강산 구경을 한 것으로 요약된다. 이후에 이루어진 만덕에 관한 이야기의 전승과 작품화의 과정은 대부분 위와 같은 기본 구도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만덕 이야기의 확대 및 재생산 과정에는 화자나 작가의 상상력이 가미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만덕에 관한 대부분의 기록과 작품들이 만덕의 행적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만덕의 삶을 객관적으로 조명하는 가운데 그녀의 삶 속에 배어있는 정신적 가치를 발굴하고 현대적 관점에서 재평가하는 작업은 더욱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은 맥락에 유의한다면 관련 사료와 후대의 작품 속에 나타난 만덕의 삶과 그녀의 행적을 통해 그녀가 견지했던 생활 방식과 삶의 태도를 읽어내는 일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한 일은 아닐 것이다. 한 시대를 살았던 역사적 인물에 대한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미화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면, 역사적 인물의 삶과 행적을 통해 현재를 사는 우리의 좌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만덕의 삶에 새롭게 관심을 갖는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2. 김만덕의 생애와 페미니즘

1) 만덕의 삶과 자유주의적 페미니즘

여성주의 혹은 페미니즘(feminism)의 관점은 김만덕의 삶을 조명할 수 있는 주요한 채널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페미니즘은 그 개념 정의부터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다원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페미니즘과 관련해서는 여성론, 여권신장론, 여성해방운동, 여성주의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사회 운

동과 학문적 이론이 함께 혼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페미니즘이라고 할 때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들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차별에 대항하는 반성차별주의의 이론 및 실천을 의미하며 여성 집단의 공동체적 이해와 유대를 강조하는 다양한 사상들을 지칭한다. 요컨대, 여성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여성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현존의 사회 체계에 도전하여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평등을 달성하는 데에 관심을 갖는 규범적인 이론과 운동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페미니즘은 여러 가지 용어로 번역, 사용되어 왔다. 1970년대 중반 페미니즘의 도입기에는 여권론, 1980년대에는 여성해방론 그리고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는 여성주의 또는 페미니즘이라는 원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페미니즘이 어떠한 용어로 통용되든, 그 개념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성차별과 억압에 반대하고 남녀 평등을 지향하는 기본 정신이 관통하고 있다 (한국여성연구소, 2004, pp. 17-8).

페미니즘은 여성됨에 관한 근원적인 물음에서 시작한다. 여성의 법적 지위가 과거보다 크게 신장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여자란 모름지기’, ‘감히 여자가’ 하는 식의 여성에 대한 고정 관념이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며, 이러한 관념들이 여러 가지 관행이나 법, 제도 등을 통해 여성들의 삶을 속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페미니즘은 이처럼 당연시되는 관념과 상식에 도전한다. 이와 같은 출발선상에서 페미니즘은 역사 발전 이래 오랫동안 남성 중심으로 왜곡되어 왔던 인류 사회의 성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그 동안 은폐 내지는 평가절하 되어왔던 여성성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여성의 활동과 삶을 부각시켜 궁극적으로는 성적 차이가 어떠한 차별의 근거도 되지 않는 평등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변종현 외, 2001, p. 354).

만덕의 삶 속에는 다양한 형태의 페미니즘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적어도 조선 사회의 유교적 신분 질서 속에서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부과되었던 법적 제도적 불평등을 만덕이 그의 삶과 도전 속에서 극복하였다는 사실은 만덕을 자유주의적 페미니스트로 볼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개인이 지닌 인격체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의 관점은 법적 제도적 불평등에서 비롯된 성차별주의의 문제를 지적한다.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부과된 불공평

한 출발선상에서 불리한 조건들을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여성에게도 남성과 같은 동일한 조건과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18세기 조선의 가부장적 유교 문화와 정절 이데올로기는 남성 위주의 사회적 가치관을 반영한 것으로서 여성에게는 불공평한 환경이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조선 시대에 강조되던 남녀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과 여성에 대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이미지는 모두 사회의 관습과 제도를 통해 고착되어진 그릇된 사회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조선 시대의 여성에게 당연한 것으로 부과되었던 불공평한 출발선과 불리한 사회적 문화적 조건을 극복하고 만덕이 유교 사회의 중심부에서도 인정받는 여성으로 거듭 태어났다는 사실은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2) 선구적 페미니스트의 삶

만덕이 가부장적 유교 문화 속에서도 여성으로서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출륙금지령과 같은 법과 관례를 깨고 육지로 나가는 최초의 제주 여성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최고의 벼슬인 의녀 반수에 올랐고, 금강산 구경을 통해 여성에게 부과된 경계를 넘어섰다는 것 등에서 페미니스트로서의 만덕을 엿볼 수 있다. 더욱이 만덕의 행적이 유교 선비들로부터 칭송을 받았고, 제주 도민 모두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18세기의 김만덕이 주변부 여성의 삶을 뛰어 넘어 유교 사회의 중심부에서도 인정받는 여성으로 거듭 태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이와 같은 측면들이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이 주목하는 바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만덕이 추구했던 삶의 목표가, 그리고 그녀가 높이 평가하고 가치를 부여했던 많은 덕목들이 본질적으로 남성 중심의 가치 판단을 반영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기가 있다.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에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애써서 쟁취한 업적이나 지위들이 모두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남성들이 좋아하고 높이 평가하는 것들(예컨대, 권력이나 재력, 사회적 명성 등등)이지 본질적으로 여성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것들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변종현, 2004, pp. 107-9). 따라서 만덕이 자신도 모르게 가부장적인 남성 위주

의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스스로를 맞추고자 한 것이었다면, 이것은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이 지닌 한계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덕의 삶 속에는 이와 같은 남성 위주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투영된 것 이외에 여성주의의 또 다른 측면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18세기 남성 중심의 유교적 전통 문화 속에서도 여성성의 새로운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바로 오늘날 피메일리스트들이 주목하는 바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페미니즘과 피메일리즘(femaleism)의 구분은 여성 해방 내지는 남녀 평등의 이상에 접근하는 방법론적 차이에서 생겨난다 (변종현 외, 2001, p. 354). 페미니즘은 남성과 여성의 성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한 차이를 모두 왜곡된 사회화의 산물로 보는 데 비해, 피메일리즘은 여성적인 것의 특징들을 모두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한다. 다만 여성적인 것이 약점도 가지고 있지만 나름대로의 강점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그러한 강점을 새롭게 인식하고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고 체격이 크며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반증하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그러한 차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한 다른 분야들이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성차에 따른 역할을 재조정하고 분담하는 편이 좋다는 것이 피메일리스트의 생각이다. 예컨대, 타인에 대한 배려, 섬세한 예술적 감수성, 그리고 사고의 유연성 등에서 여성이 앞선다는 사실을 제대로 평가하고 이를 정당하게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편이 보다 실리적이고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부과된 남성 중심의 유교적 신분 질서와 정절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피해자가 아니라 만덕이 여성으로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표현하는 개방적인 풍모를 보였다는 지적은 피메일리스트의 시각에서 만덕을 조명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만덕전」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여성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며,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현대 여성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제주도, 1989, p. 85) 남성 위주의 가치관에 함몰된 자유주의적 페미니즘과는 다른 새로운 측면을 발견하게 된다.

혁신적 사고와 도전 의식 그리고 강한 의지와 각고의 노력을 통해 여성에게 부과된

경계를 뛰어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랑과 감정에 충실했던 주체적인 여성이 바로 만덕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만덕은 흔히 남성성의 특징으로 간주되는 시대를 꿰뚫는 지적 능력과 불굴의 개척 정신, 강한 의지력 등과 함께 전통적으로 여성성의 특징으로 간주되는 타인에 대한 보살핌과 나눔의 미덕을 함께 지닌 양성적 인간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김경애, 2004b, pp. 34-36). 따라서 만덕의 삶을 페미니즘 혹은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의적 관점이 아닌 다양한 시각에서의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

3) 주체적인 삶의 개척자

만덕의 성공 신화는 그녀가 제주에서 제일가는 부자가 되었고, 자신이 애써 모은 물질을 다른 이들을 위해 대가 없이 나누어 주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녀가 기존의 제도와 질서에 순응하기 보다는 자신의 자존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는 점 그리고 그렇게 맞설 수 있는 용기와 도전의 정신을 발휘했다는 사실이다. 만덕은 자신의 사업을 경영한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자체를 기획하고 경영했던 인물이다. 만덕이 여성과 기녀라는 성과 신분의 굴레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고 주체적인 인생을 개척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기녀에서 벗어나 양인의 신분을 되찾는 인생 역정이다. 만덕은 부모를 여의고 어린 나이에 기녀가 되었다가 20세에 다시 양녀로 돌아온다. 기녀로 평생을 마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가에 간곡히 호소하여 기적(妓籍)에서 이름을 없앴다는 것은 그녀가 얼마나 주체성이 확고한 여성인가를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더욱이 주목할 부분은 다른 많은 기녀들이 선택한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기적에서 벗어났다는 점이다. 기적에서 벗어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첩의 길을 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덕은 한 남성을 선택하여 가부장제의 구도 속에 안주하고 보호받는 첩으로서의 삶을 거부하고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선택하였다.

직업이 신분이었던 조선 시대에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다. 기녀는 그녀의 직업이며 신분이었다. 물론 조선 시대에도 신분이 상승되는 경우는 있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을 세웠을 경우에 명예직의 벼슬을 내리거나 면천(免賤)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그러나 만덕은 자신의 설득력과 경제적

능력을 통해 기녀에서 양인으로 그리고 객주 주인으로 삶의 형태를 바꾼다. 이처럼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데 필요한 조건을 갖춘 후 사업적 수완을 발휘하여 부를 축적함으로써 자기 운명의 개척자가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만덕이 불가능에 가까운 낮은 확률에 도전하여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진취적이고 주체적인 정신을 보여 준다 (박무영 외, 2004, p. 197).

둘째, 양인의 신분을 회복한 뒤에 만덕이 선택한 독신으로서의 삶이다. 양인으로 돌아온 만덕은 한 남성과 결혼해 평생을 그 그늘 아래에서 살려고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실 또한 그녀가 얼마나 주체적인 삶의 목표를 지니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준다. 노비나 기녀 등이 아닌 여성이 조선 시대에 독신으로 산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덕이 혼자 사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높은 자존감과 더불어 자신이 속한 사회의 제도를 넘어설 수 있는 결단력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덕이 상업적 수완을 발휘하여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된 이면에는 남성들을 머슴으로 거느리는 경영 능력과 인간 관리 능력이 자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남성들을 머슴으로 거느리기는 했으나 남편으로 맞이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만덕이 남성 중심의 유교 문화에 동화되어 한 지아비를 섬기며 가정에 안주하기 보다는 더 높은 사회적 이상을 추구하고자 했음을 보여 준다.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녀로서 유교 사회의 주변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으나 만덕은 이에 굴하지 않고 당시 활발해진 해상을 이용한 유통업에 눈뜨고 여성 기업인으로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갔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인물이었다.

셋째는, 만덕이 여성에게 부과된 한계를 뛰어넘어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이다. 여성에게 엄격했던 사대부들이 가난한 집안 출신의 전직 기녀였던 독신녀를 앞다투어 칭송하게 된 것은, 만덕이 객주를 운영하면서 제주도 물품과 육지 물품을 교역하는 유통업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이루었고, 그 부를 계속되는 기근에 시달리는 제주 도민을 살리는데 쾌척하였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 유교적 가치가 지배하는 신분 사회의 벽을 넘어 활발한 사회 활동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이를 다시 사회에 환원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녀가 주체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만덕은 자신이 쌓은 부를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정조의 칭송을 한 몸에 받았고 비록 명예직이긴 하지만 의녀 반수라는 여성으로서는 최고의 벼슬에 오름으로써 유교 사회의 중심부에 우뚝 서게 되었다.

또한 대궐을 찾아 정조를 대면하고 금강산 구경을 원했다는 것은 당시 제주 여성에게 부과되었던 출륙금지령의 테두리를 단숨에 뛰어넘어 여성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던 이동의 자유를 요구하고 성취한 것이기도 하다. 더욱이 금강산 구경을 소망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남성에게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매우 진취적인 사고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한번 기적에 올랐다가 양녀로 돌아오는 것도 어렵지만 평생 모은 재산을 모아 빈민을 구휼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남성들도 감히 엄두를 낼 수 없는 금강산 구경을 실행했다는 점에서 만덕의 진취성을 읽어낼 수 있다 (윤치부, 2001, pp. 57-69). 정조의 명을 받아 소원을 묻는 제주 목사 이우현에게 만덕이 다른 소원은 없사오나 오직 한 가지, 한양에서 임금님 계시는 궁궐을 우러러보는 것과 천하 명산인 금강산 1만 2천봉을 구경하는 것이라고 답하는 모습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단 한번의 기회를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무형의 자산을 위해 멋지게 투자하는 만덕의 모습을 보게 된다.

너무도 부자유한 시대에 새로운 것에 과감하게 도전하고 이것을 개척해 나간 용기 있고 적극적인 그리고 진취적인 여성의 이미지가 바로 만덕의 모습이었다. 만덕을 오늘날 다시 생각하는 것은 엄중한 유교 규범과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가 여성을 옥죄고 있던 시기에 시대와 불화하지 않으면서 당시 여성에게 지워진 법적 제도적 문화적 한계를 거침없이 뛰어넘어 이상을 성취한 그녀의 용기와 도전 때문일 것이다.

3. 김만덕의 경제 활동과 자본주의 덕목

1) 자본주의 덕목의 요체

만덕의 삶을 조망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유용한 관점은 그녀의 경제 활동에서 묻어나고 있는 현대적 의미에서의 자본주의 정신(spirit of capitalism)이다. 인간의 경제 활동 이면에는 인간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결정하는 정신적 측면이 배태되어 있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만덕이 기녀로서의 삶을 정리하고 유통업에 도전하여 막대한 자본을 축적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여준 경제 활동에서의 윤리적 덕목들이다. 이것은 서구적 의미의 자본주의 정신 혹은 우리의 상도(商道)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장 경제의 역기능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가 인간의 얼굴과는 거리가 먼 그리고 도덕과는 무관한 사회라고 주장한다. 이기적인 원자적 개인들이 서로 경쟁하는 공간으로서의 시장은 자원 배분을 위한 기제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아담 스미스(Adam Smith)에서 비롯된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에서 엿볼 수 있듯이, 자유주의와 자유 시장 경제 혹은 자본주의 사회는 도덕적 감성으로부터 유리된 사회가 아니다.

아담 스미스는 이기심에 의한 이익 추구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경우라면 철저하게 옳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다. 그가 생각한 이익 추구나 경쟁의 개념은 무자비하고 무절제한 이익 추구나 경쟁이 아니라 스토아 철학의 이념을 반영한 절제되고 규율된 이익 추구하고 경쟁이다. 따라서 견제와 절제가 전제된 경쟁이 이루어 질 때 자유 사회와 시장 경제가 자율적으로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다. 자유로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와 같은 도덕적 규범이 바로 자본주의 정신이다. 자본주의는 도덕과 관계없이 극단적 경쟁과 사적인 이윤 추구만을 지향하는 경제적 기제가 아니라 도덕적, 문화적 가치를 전제로 한다.

베버(M. Weber)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자본주의 정신이 내면화하고 있는 일련의 고유한 특성들을 분석하였다. 신용할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자본을 증식시키는 일이 자기 자신의 목적이자 의무라고 생각하는 사상이 바로 자본주의 정신이다. 또한 성실, 시간 엄수, 근면, 절약, 불확실성 상황에서의 결단 등이 모두 자본주의 정신의 요체이다. 베버는 이와 같은 자본주의 정신이 단순히 돈벌기 위한 철학이나 이윤 극대화의 철학의 범주를 넘어서서 하나의 독립적인 에토스(ethos)를 상징하고 있으며, 다른 경제 체제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일련의 경제적 덕목들(economic virtues)을 내포한 윤리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박성수 역, 1996, pp. 37-8).

베버의 자본주의 정신은 퀴른베르거(Ferdinand Kürnberger)가 소위 양키의 신앙 고백이라고 조롱했던 프랭클린(B. Franklin)의 다음의 글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박성수 역, 1996, pp. 34-6).

시간이 돈임을 잊지 말라. 매일 노동을 통해 10실링을 벌 수 있는 자가 반나절을 산책하거나

자기 방에서 빈둥거렸다면, 그는 오락을 위해 6펜스만 지출했다 해도 그것만 계산해서는 안 된다. 그는 그 외에도 5실링을 더 지출한 것이다. 아니 갖다 버린 것이다.

신용이 돈임을 잊지 말라. 누군가가 자신의 돈을 지불 기간이 지난 후에도 찾아가지 않고 나에게 맡겨 두었다면 그는 나에게 이자를 준 것이거나 아니면 내가 이 기간동안 그 돈으로 할 수 있을 만큼의 것을 준 것이다. 좋은 신용을 가졌고 그것을 잘 이용한다면 대단한 액수의 돈을 쌓을 수 있다.

돈이 번식력을 갖고 결실을 맺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잊지 말라. 돈은 돈을 낳을 수 있으며 그 새끼가 또다시 번식해 나간다. 5실링은 6실링이 되고 다시 7실링 3펜스가 되어 결국 1백 파운드가 된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은 더욱 늘어나며 결국 효용은 보다 급속하게 증가한다.

신용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아주 사소한 행위라도 조심해야 한다. 당신의 채권자가 오전 5시나 오후 8시에 듣는 당신의 망치 소리는 채권자로 하여금 6개월을 유예시키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일하고 있어야 할 시간에 그가 당신을 당구장에서 보거나 주점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그는 바로 다음날 상환 독촉을 할 것이며 당신이 그 돈을 쓰기도 전에 다시 내놓으라고 할 것이다. 망치 소리는 그 외에도 당신이 당신의 채무를 잊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렇게 해서 당신은 조심스럽고도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 따라서 당신의 신용도 늘어난다.

베버는 여기에 단순한 처세술이나 사업상의 지혜가 아닌 독특한 윤리가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고대나 중세에서는 가장 천박한 형태의 탐욕으로 간주되었을 이 글이 자본주의 정신을 가장 순수하게 담고 있다고 말한다. 신용할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자신의 자본을 증식시키는 일이 자기의 목적이며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정신의 핵심이다. 또한 정직과 신용, 시간 엄수, 근면, 검소 등도 이 글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유익한 미덕들이다.

자본주의 정신의 뿌리는 노동이 신의 소명이며 부는 은총의 표시라는 신앙 하에 근면, 검소, 자기 수양,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를 계획하고 저축하는 생활 태도를 강조한 루터와 칼뱅의 신학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가장 큰 죄악이 시간의 낭비이며, 전력을 다해 자발적인 삶의 향락과 그 향락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배격하라는 금욕주의 탄생의 배경이 되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자기의 맡은 바 일에 전력 투구해야 하며, 많은 경우에 그야말로 사력을 다하여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직업에 대한 소명 의식과

장인 근성이다.

2) 자본주의 정신의 실천

(1) 상도(商道)에 입각한 부의 축적

자본주의 정신은 이윤 추구 성향을 포함하면서도 그를 한 단계 초월하는 도덕적 자질로 이루어져 있다. 자본주의 정신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 혹은 교묘한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기는 행위와 양립할 수 없다. 황금을 보기를 둘 같이하는 행위가 자본주의 정신의 전형일 수는 없지만, 황금을 얻기 위해 모험을 마다하지 않고 경쟁자들과 공정한 경쟁을 벌인다면, 이는 자본주의의 덕목을 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만덕은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째 이익을 적게 남기고 많이 파는 것, 둘째 적절한 가격 매매, 셋째 정직한 신용 본위가 그것이었다 (제주도, 1989, pp. 34-6). 만덕은 철저히 신용을 바탕으로 일을 처리했다.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직과 성실성을 기반으로 사업을 꾸려 나갔다. 만덕은 기녀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양반층 부녀자의 옷감, 장신구, 화장품 등을 염가로 공급했다. 나아가서 관가의 물품까지도 조달하는 등 만덕의 객주(客主)는 큰 규모의 무역 거래소가 되었고, 몇 년 만에 만덕은 제주의 거상(巨商)이 되었다.

만덕이 따르고 보여준 경제 활동의 준칙은 베버가 분류한 바,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천민 자본주의(pariah capitalism) 정신과 구별되는 성실과 신용을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 정신의 표현이었다. 도덕이나 상도와는 무관한 개인적 이윤 추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의무로서의 일에 대한 엄격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극대 이윤만을 쫓기보다는 상 거래의 도(道)를 지키는 가운데 필요한 최소한의 이윤을 추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금욕과 검소한 생활 태도

여성의 모든 재능이 억압받던 조선 시대에 만덕의 성공은 이례적인 것이었으며, 그

만큼 많은 화제를 낳았기도 하였다. 객주를 통한 유통업에 성공하여 거상이 되었지만 만덕의 일상 생활은 언제나 검소했다. 소유 자체가 유혹일 수 있었으나 그녀의 생활은 검소하고 소박했다. 풍년에는 흉년을 생각해 절약하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고생하는 사람을 생각해 하늘의 은덕에 감사하면서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만덕의 생활 철학이었다 (제주도, 1989, p. 36).

풍랑 때문에 육지와와의 거래에 문제가 생기면 하늘을 쳐다 볼 수밖에 없는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 나갔다. 평소에도 풍년이 들면 흉년들 때를 대비하여 절약하고 비상 물품을 비축하였다. 늘 주변 사람들에게는 편안히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그 은덕에 감사하고, 아래로는 어렵게 고생하는 사람을 생각하여 검소하게 생활해야 한다는 당부를 입에 달고 살았다. 그리고 재능과 성실함을 지닌 사람은 여자라도 데려다 일을 가르치고 기회를 주는 일을 잊지 않았다.

만덕은 금강산 구경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도 사업을 계속하였고 검소한 생활을 잊지 않았다.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고, 굶주리는 사람에게는 쌀을 주는 등 자선 사업에 주력하였다. “재물을 잘 쓰는 자는 밥 한 그릇으로도 굶주린 사람의 인명을 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썩은 흙과 같다”는 만덕의 생각 속에서 그녀가 재물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김건우 편역, 2003, p. 36). 이처럼 검소하고 금욕적인 삶의 모습이 그리고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는 자선과 봉사의 삶이 제주 도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만덕 할머니로 불리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3) 나눔과 베품의 삶과 실천

베버에 따르면 이윤을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자기 소명에 충실하여 자기 영혼을 구제하는데 있기 때문에 자본가들의 이윤 추구 행위는 이웃에 대한 봉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자본가들의 이윤 추구 행위를 자본주의 원리라고 하고, 이윤 추구 행위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 이웃에 대한 봉사를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한다. 베버는 자본주의 정신이 전제된 이윤 추구를 정당한 것으로 보았다. 이윤 추구의 경제 활동에는 이웃에 대한 봉사라는 자본주의 덕목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원리는 충실하게 이전되었지만, 자본주의 정신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된다.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경영 활동을 한다. 그러나 사회가 진정 요구하는 기업은 반드시 윤리 경영이 이윤 극대화에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만덕의 사업 경영과 아무런 대가 없는 자선 행위는 이웃에 대한 봉사를 전제로 한 자본주의 정신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제주는 정조 16년(1792)부터 흉년이 계속되었고, 1794년에는 한 해에 제주 도민의 30%가 굶어 죽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였다. 정조 19년(1795) 윤2월 제주 도민을 구휼하기 위해 조정에서 보낸 곡물 1만 1천 석을 싣고 떠난 두 번째 수송 선박 중 다섯 척이 침몰하자 상황은 극에 달했다. 이 소식을 접한 만덕은 자신의 전 재산을 구호 사업에 희사하기로 결심하였다. 전 재산을 풀어 육지에서 들여온 곡식 500여 석 가운데 450여석을 진휼미로 내놓았다 (채제공, 1977).

당시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지닌 제주 도민들도 구휼에 동참하였다. 전 현감 고한록(高漢祿)은 300석을, 장교(將校) 홍삼필(洪三弼)과 유학(幼學) 양성범(梁聖範)이 각각 1백석을 내놓아 구휼하였다. 고한록의 기부에 대해 제주 목사 이우현이 ‘무려 300석’이라고 말한 것이나 이 소식에 접한 정조가 “이들이 1백석을 자원 납부한 것은 육지의 1천 포(包)와 맞먹는다”고 말한 것으로 볼 때 만덕의 기부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정조실록』 19년 5월 11일조). 더욱이 만덕의 기부는 기녀 출신의 여성으로서 객주 운영과 유통업을 통해 얻은 막대한 부를 기아에 허덕이는 제주 도민을 위해 아무런 대가없이 기꺼이 내놓은 것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소유 그 자체는 유혹이다. 근대적 자본주의 정신과 근대적 직업 사상에 입각한 합리적 생활 방식은 기독교적 금욕의 정신에서 탄생한 것이다(박성수 역, 1996, p. 144). 외적인 재화에 대한 관심은 마치 언제든지 벗을 수 있는 얇은 겂옷처럼 인간의 어깨에 놓여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만덕의 삶은 재화에 종속된 전도된 삶이기보다는 소유와 재화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삶이었다. 우리가 만덕의 삶 속에서 느껴야 할 것은, 그것은 많은 것을 가졌을 때 진정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런 선택이 진정 필요한 경우라면 무소유할 수도 있는 그녀의 자유로움이다 (박무영 외, 2004, pp. 208-9).

만덕이 견지한 박리 다매, 정직 매매, 신용 본위의 세 가지 상거래 원칙은 그녀의

경제 행위가 자본가 정신에 입각한 것임을 보여준다. 부의 축적 과정에서 상(商) 윤리와 도덕을 지켰으며, 막대한 부에도 불구하고 늘 검소한 생활을 했다는 점은 그녀의 경제 행위가 서구적 자본주의를 가능하게 했던 자본주의 정신에 상응하는 우리의 상도(商道)에 근거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소에서는 기름을 짜내고 사람에게에는 돈을 짜내는 철학’이 아니라 자신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나눔과 베품의 미덕을 실천했다는 사실은 그녀의 경제 활동이 윤리에 의해서 지탱되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이것은 베버가 지적한 천민 자본주의(pariah capitalism)를 극복할 수 있는 일종의 경계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허만 칸(H. Kahn)은 유교 윤리와 자본주의 발달의 함수 관계에 기초하여 고도 성장을 이룬 동아시아 국가들의 신유교 자본주의 문화를 정의한 바 있다 (Kahn, 1979, p. 144). 베버는 유교 윤리가 자본주의 발달에 장애가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전개된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자들은 유교 윤리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들은 유교 윤리가 자본주의 발달에 기여한 요소를 강조하면서 신유교 자본주의 문화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Jones & Sakong, 1980, p. 255).

- 첫째, 자신과 가족의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경쟁적인 헌신
- 둘째, 발전의 도구로서의 교육에 대한 존중심
- 셋째, 일에 대한 헌신, 근면, 자기 수양에 관한 가치 존중
- 넷째, 실용적인 목적 추구에 걸림이 되는 종교적, 이념적 제약이 없음
- 다섯째, 권리보다는 의무에 충실하고 위계적인 조직에 참여하여 생산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윤리 의식

만덕의 경제 활동 속에는 서구적 의미의 자본주의 덕목 이외에도 위에서 제시한 신유교 자본주의의 요소들이 잘 드러나고 있다. 특히 만덕이 자신과 가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혼신을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는 것은 신유교 자본주의의 핵심적 요소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으나 그가 축적한 자본과 그가 행한 자선을 통해 결국에는 가족을 구제하고 가족과 화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의 경제 활동이 궁극적으로는 자신과 가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혼신의 과정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일에 대한 헌신과 근면 등의 문화적 가치 역시 만덕의 경제 활동에 배어 있는

기본적 덕목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정신에서 강조하고 있는 소명과 장인의식에 못지않게 전통적인 유교 문화 속에서도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조출경야귀독(朝出耕夜歸讀)의 정신은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관춘, 2003, p. 274). 만덕의 삶의 태도는 바로 이와 같은 노동 중시 즉 일에 대한 헌신과 근면의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된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신유교 자본주의 정신의 구체적인 표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평가는 만덕의 치부 그리고 나눔과 배품의 실천이 서구의 자본주의 정신에 필적하는 상도와 윤리에 기초한 것이었음은 물론 오늘날 동아시아의 정신적 가치로 간주될 수 있는 신유교 자본주의의 덕목에 기반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만덕의 경제 활동과 그녀의 삶 속에는 서구 현대의 자본주의 정신이 체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 성장을 통해 새로이 주목받고 있는 신유교 자본주의의 덕목들이 융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4. 김만덕의 성공과 기업가 정신

1)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기업을 책임지는 21세기형 CEO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찍이 쉘페터(J. Schumpeter)는 사회 발전의 원동력을 기업가에서 찾은 바 있듯이, 자본주의의 기둥이 되는 계층은 기업가들이다. 오늘날 CEO는 첨단 기술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조하는 경제 수단의 총합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만덕을 성공적인 여성 기업가 나아가 여성 CEO의 전형적인 모델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자본과 사업 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는 오늘날, 그녀는 조선 시대의 성공한 여성 기업가, 여성 CEO로 새롭게 해석되고 있다 (박무영 외, 2004, p. 207). 조선 시대의 여성으로 탁월한 경영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막대한 자본을 축적하였고 이를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오늘날 기업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을 완수했다는 점에서 만덕은 오늘날 여성 기업가의 전형적 모델로 평가될 수 있다. 이것은 만덕이 거상으로 성장하는 과정과 그 이후에 보여준 일련의 행태가 오늘날 기업가들에게 요구되는 자

질이나 행태에 하나의 주요한 준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만덕에게서 자선과 봉사의 의미뿐만 아니라 성공한 기업가로서의 능력을 찾는 작업은 조선 시대 한 여성의 정체성을 확대하고 그녀의 삶을 조명할 수 있는 새로운 시야를 여는 것이기도 하다. 만덕은 성공한 여성 경제인 그리고 여성 CEO의 모델이다. 만덕이 18세기 조선의 주변부인 제주에서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세상을 꿰뚫는 안목을 바탕으로 유통업을 개척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와 같은 통찰력과 안목이 강한 추진력과 결합되면서 막대한 자본을 축적하는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른바 기업가 정신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기업가 정신의 진작

(1) 시대 변화를 읽는 통찰력과 개척 정신

김만덕이 살았던 조선 영·정조 시대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변화의 시대였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그녀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었고, 그녀 자신이 인생의 주체가 되는 길을 선택하여 과감한 투자를 결행하였다. 만덕의 이와 같은 결단은 유통업에 대한 관심과 진출로 결실을 맺게 된다. 영·정조대 농업 생산력의 증대와 이에 따른 상업의 발달은 조선 후기 양반 사회는 물론 서민 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로 시장 기능이 활성화되어 상업이 크게 발달하였다. 그 가운데 상품을 매점하거나 독점함으로써 이윤을 취하는 도매상인 도고(都賈)가 출현하게 되었고, 이는 서민 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조선 후기의 사회 경제적 변화 속에서 만덕은 운송 체계에 기초한 유통망이 상업 발전의 근간이라는 사실을 간파하였다. 그가 부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투자한 분야가 바로 유통업이다. 18세기 중엽은 전국적 유통망이 갖추어지던 시기였다. 당시 유통망은 육상과 해상 두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육상 교통이 도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해상 교통의 중심은 포구(浦口)였다.

해상 교통은 육상 교통에 비해 시간적 경제적으로 유리하였고, 물질을 통한 상품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해상이나 강상 교통의 요지에 포구가 설치되었다. 내륙 각지에는 5일장인 장시(場市)가 섰고, 해안과 강가의 포구도 흥청거렸다. 장시와 포구가

상품 유통의 거점이 되면서, 18세기 중엽에 이르러 장시와 장시, 장시와 포구, 포구와 포구가 서로 연결되어 전국이 하나의 상권으로 형성되어 갔다. 내륙에서는 마필(馬匹)에 의한 육운(陸運)이, 연해안 또는 수로에서는 선박에 의한 수운(水運)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만덕이 주목한 것은 바로 포구가 지닌 유통망으로서의 가치였으며, 이를 위해 포구에 객주(客主)를 차리게 되었다. 객주는 여관의 구실도 했지만 외지 상인들의 물건을 위탁받아 팔거나 거간하는 중산상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만덕은 객주를 중심으로 제주의 양반층 부녀자에게 육지의 옷감과 장신구, 화장품 등을 팔고, 제주 특산물인 미역, 전복, 표고, 양태, 말총, 녹용과 꿀 등을 육지에 팔아 시세 차익을 남겼다 (제주도, 1989, pp. 34-6). 그녀는 관가의 물품도 조달하게 되었고, 포구의 상품 유통을 독점적으로 담당하는 포구주인권(浦口主人權)을 획득한 것으로 추측된다. 만덕은 자신의 포구에 적극적으로 선상을 유치했고 그 자신의 선박까지 소유하게 되었다 (이덕일, 2003, pp. 454-57).

격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는 통찰력과 예견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와 도전이 기업가로서의 만덕이 제주가 지닌 주변부의 지리적 한계와 여성에게 부과되었던 태생적 굴레를 극복하고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이와 같은 과감한 도전과 성취는 오늘날 강조되고 있는 기업가 정신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만덕이 18세기 조선의 사회 경제적 변화 속에서 보여준 기업가로서의 능력은 21세기 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모색하고 탐구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산이 아닐 수 없다.

(2) 장기적 비전을 지닌 여성 기업인

성공적인 기업가는 시대 흐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예측을 바탕으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비전은 환상이 아니라 차별화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가치이다. 현재 처한 위치와 상황을 평가하고 미래의 시장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가는 단기적 경영에 집착하기보다는 긴 안목을 가지고 중장기적 비전에 따라 자신과 기업의 목표를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에 CEO의 핵심적 덕목 가운데 하나로 강조되는 것이 바로 마케팅 선견력이다.

마케팅 선견력이란 미래의 기회에 대한 객관적이고 창조적인 예견 능력을 말한다. CEO는 근시안에서 벗어나 현존하는 시장과 상품의 개념을 뛰어넘어 화이트 스페이스(white space, 현재 비어 있는 새로운 시장)를 개척하고 활용할 수 있는 안목을 지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과 기업을 보는 시각을 수정하거나 또는 고정 관념을 깨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할 때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경쟁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다. 전혀 새로운 산업을 인식하고 예견해 장기간에 걸치는 산업의 흐름을 주도함으로써 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끼쳐야 한다. CEO는 마케팅 선견력을 제고해 미래의 경쟁 우위를 추구하며 꿈의 가능성을 실현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전망은 장기적 관점에서 가능하다.

만덕의 사업 경영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생존에 강조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그녀가 유통업을 개척하면서 신용 본위의 원칙을 견지했다는 사실은 단기적인 이익 추구를 넘어서 사업의 장기적 생존 가능성을 중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업이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신용을 토대로 절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재물을 추구해야 한다 (권명중, 2002, p. 79). 만덕은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면서 이와 같은 신용 본위의 경영 철학에 입각한 장기적 비전을 지니고 있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삶을 보는 사람들은 절제와 균형 감각을 잃지 않는다. 만덕의 장기적 비전에 기초한 사업 경영은 오늘날 기업가들이 지녀야 하는 전형적인 덕목 가운데 하나이다.

(3) 혁신과 모험을 통한 기업가 정신의 실천

기업가는 기존의 것을 좀더 잘하는 것보다는 뭔가 다른 것을 하는 것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로 인식한다. 기업가는 현상을 뒤집고 또 해체한다. 스페터가 공식화한 것처럼 기업가가 수행할 과제는 창조적 파괴다. 기업가들은 변화를 정상적인 것으로, 그리고 건강한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기업가는 땀과 노력 그리고 희생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그들은 신의 법칙과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한다. 기업가들은 언제나 변화를 탐색하고, 그것에 대응하고, 그것을 하나의 기회로 활용한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의 정의이기도 하다 (이재규 역, 2004, p. 44). 따라서 기업가 정신이란 개인적인 성격의 문제라기보다는 행동 양식의 문제이다.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우 위험이 크다고 인식되고 있다. 기업가는 원칙적으로 생산성과 성과가 낮은 분야에 투입된 자원을 생산성과 성과가 높은 분야로 이동시킨다. 기업가에게 필요한 것은 위험을 무릎 쓰고 과감한 투자를 행하는 도전 의식이며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 요소를 발전 기회로 전환시키는 능력이다. 따라서 기업가 정신이란 위험 부담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전제로 하여 가치 있는 그 무엇을 새로이 창조하는 과정이다. 모험과 도전을 극복하고, 어려움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남다른 인내심과 투철한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는 자세 등이 기업가 정신이다.

기업가 정신은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전략적 사고에 기초해야 한다. 또 혁신, 성장, 창의성, 위험 추구, 특이함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어디에 기회가 있는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어떤 자원이 필요한가, 그와 같은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어떤 구조가 가장 알맞은 것인가를 끊임없이 살피는 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다. 따라서 의사 결정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오늘날 요구되는 기업가가 되는 법을 배울 수 있으며 기업가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창조적 파괴를 통한 변화의 추구, 모험과 도전을 통한 발전 기회의 창출 등이 오늘의 기업가들이 지녀야 하는 덕목들이다. 오늘날 우리가 만덕을 18세기 조선의 여성 기업가 그리고 여성 CEO로 평가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만덕이 당시에 보여주었던 기업가로서의 위와 같은 자질 때문일 것이다. 여성의 경제 활동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경제 활동의 대상과 영역이 지극히 여성적인 것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만덕이 유통업을 개척했다는 사실은 엄청난 발전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변화와 모험 그리고 도전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다.

전통 사회에서 여성은 기본적으로 가사 노동의 종사자로 간주되어 왔으며, 따라서 직업의 선택에 있어서도 가사 노동과 관련된 직업을 선택하기가 용이하였다. 기생의 하녀로 생계를 유지하다 기녀의 삶을 살았던 것이 만덕이었다. 그 후 양인의 신분을 되찾아 만덕이 시작한 일이 객주를 운영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일들은 모두 여성에게 부과되었던 가사 노동과 관련된, 가사 노동 연장적인 직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만덕은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에 기반한 노동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김경애, 2004a, pp. 92-94).

물론 여성은 가정의 울타리 내에 머무르면서 시부모 봉양, 남편 내조, 가사일과 자

녀 양육 등 전통적인 성 역할에 충실한 것이 이상적인 삶으로 간주되던 시대에 만덕이 직업을 통해 사회 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도전일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만덕의 경제 활동이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만덕은 전통 사회에서 여성이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직업이나 가부장제 사회가 필요로 했던 직업에 종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분야 즉 객주를 기반으로 한 유통업을 개척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변신은 격변하는 사회 경제적 흐름에 대한 통찰과 이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적극적인 도전과 모험 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만덕은 가부장적 유교 사회에서 여성 특히 기녀 출신이라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 넘어 새로운 시대 변화 속에서 기회 요인을 찾아내는 통찰력과 안목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판단이 강한 의지와 노력을 통해 결실을 맺음으로써 자신의 사업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경영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만덕의 삶 속에서 조선 시대 최초의 여성 기업인 그리고 성공한 여성 CEO의 자취를 탐색하게 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혁신적 사고와 개척 정신, 정열과 집념, 헌신과 봉사의 모습이 조선 시대 최초의 여성 기업인 만덕이 보여준 삶의 모습이자 기업가 정신의 표현이다.

5. 맺는말

18세기 조선 사회를 살았던 제주인 김만덕에 관한 최근의 관심과 연구는 한 여성에 대한 전기적 차원의 접근을 넘어, 그녀의 삶이 지닌 현대적 의미를 다양한 측면에서 짚어보고 나아가 오늘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 인간의 삶에 대한 조명이 단순한 연대기적 이해를 넘어서는 매우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이다. 신분 질서가 부여한 귀속적 지위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교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칭송받게 된 조선의 여인이 만덕이며, 오늘의 기업가 정신에 상응하는 모험과 도전을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한 성공한 CEO, 나눔과 배움의 삶을 몸소 실천한 여인이 또한 만덕의 모습이기도 하다.

만덕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접근은 조선 후기의 시대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 그리고 만덕의 삶을 감싸고 있었던 다양한 여러 가지 변수와 맥락을 고려할 때 가

능할 것이다. 하나의 고정된 시각에서 만덕을 바라보는 것은 그녀의 삶이 지닌 의미를 하나의 전체로서 파악하는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조선 영·정조대의 정치 질서와 사회 변화 그리고 당시의 거시적인 경제 체제와 제주 경제, 그녀의 경제 활동 사이의 관계를 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을 때, 다양한 모습의 만덕을 만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만덕의 모습은 다양하다. 만덕의 정체성의 근원은 다양한 층위를 이루고 있다. 기녀에서 출발해 불굴의 의지로 유통업을 개척한 기업가의 모습에서, 오늘날 서구 자본주의 정신의 도덕적 기초에 상응하는 우리의 상도(商道)를 실천한 경제인, 자신이 모은 전 재산을 제주 도민을 위해 기꺼이 환원한 자선가, 그리고 부자유한 시대에 여성의 굴레와 한계를 뛰어넘은 자유인의 모습에서 18세기 조선 사회를 치열하게 살았던 만덕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처럼 만덕을 규정했던 다양한 정체성의 근원을 이해할 수 있을 때, 과거의 만덕과 그녀의 삶이 오늘의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명중(2002), 「거상 임상옥의 상도 경영」, 거름.
- 김건우편역(2003), “김만덕”, 「나는 당당하게 살겠다」, 문자향.
- 김경애(2004a), "김만덕 삶에 대한 여성주의적 재해석", 제주국제협의회 제17차 학술대회 「21세기 제주 사회와 여성」, pp. 82-102.
- 김경애(2004b), "시대와 불화하지 않으면서 시대를 뛰어넘은 여성 기업인 김만덕", 「함께 가는 여성」, pp. 34-36.
- 김영진역(2001), 심노승 저, 「눈물이란 무엇인가」, 태학사.
- 김원주(1996), 「경영윤리론」,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준형(2000), “만덕 이야기의 전승과 의미”, 사단법인 제주학회, 「제주도연구」 제17집, pp. 1-26.
- 박무영외(2004), 「조선의 여성들: 부자유한 시대에 너무나 비범했던」, 돌베개.
- 박성수역(1996), 막스 베버 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문예출판사.
- 박용옥(1981), “만덕”,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여성」 제176호, pp. 50-51.
- 박헌준편저(2004), 「한국의 기업윤리」, 박영사.
- 변종헌(2004), 제주국제협의회 제17차 학술대회, 「21세기 제주 사회와 여성」 토론자료, pp. 107-9.
- 변종헌외(2001), 「현대 사회와 이데올로기」, 인간사랑.
- 「승정원일기」, 정조 20년 11월 24일조.
- 안진환역(2003), 조나단 B. 화이트 저, 「애덤 스미스 구하기」, 생각의 나무.
- 윤치부(2001), “인물전에 나타난 제주 여성의 삶”,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깨어나는 제주여성의 역사」, pp. 57-69.
- 이관춘(2003), 「직업은 직업이고 윤리는 윤리인가」, 학지사.
- 이덕일(2003), 「이덕일의 여인열전」, 김영사.
- 이재규역(2004), 피터 드러커 저,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가는 기업가 정신」, 한국경제신문.
- 「정조실록」, 정조 19년(1795) 5월 11일조; 정조 20년 11월 25일조.
- 제주도(1989), 「구원의 여상 김만덕」, 제주도청.
- 채제공(1977), 「번암집」, 동화출판공사.
- 한국여성연구소(2004), 「새 여성학강의」, 동녘.
- 현승환(2004), “21세기에 다시 보는 김만덕”, 제주국제협의회 제17차 학술대회, 「21

세기 제주 사회와 여성」, pp. 61-81.

Jones, L. P. & Sakong I(1980), *Government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in Economic Development: The Korean Cas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Kahn, H(1979), *World Economic Development: 1979 and Beyond*, London: Croom Helm.

변중현 교수의 발표문은 김만덕의 생애를 통해 그의 정신적 가치를 탐색하는데, 3가지로 접근하고 있다.

김만덕의 생애와 페미니즘, 만덕의 삶과 자유주의적 페미니즘, 선구적 페미니스트의 삶, 주체적인 삶의 개척자

김만덕의 경제 활동과 자본주의 덕목, 자본주의 덕목의 요체, 자본주의 정신의 실천, 상도에 입각한 부의 축적, 금욕과 검소한 생활태도, 나눔과 배움의 삶과 실천,

김만덕의 성공과 기업가 정신,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의 진작, 시대 변화를 읽는 통찰력과 개척 정신, 장기적 비전을 지닌 여성 기업인, 혁신과 모험을 통한 기업가 정신의 실천,

첫째 항에서는 부모를 잃고 혼자 살아간 그녀를 다른 남성보다 뛰어난 존재로 평가하고,

둘째 항에서는, 만덕이 많은 돈을 벌어가는데 과정에 대해 자본주의 관점을 적용했고,

셋째 항에서는 돈을 벌게 된 그녀를 현대의 기업인에 비추어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하는 데에는 먼저 만덕이란 인물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만덕에 관한 기록을 보면,

1796	정조실록19	1823	채제공의 만덕전***			이가환의 송만덕환탐라
1796	승정원일기		이재체의 만덕전			박제가의 한시
1796	일성록		심노송의 만덕전			홍도의 한시
1812	구묘비문	1862	유재건의 만덕***			조수삼의 한시
	다산시문집					
	남만리의 탐라지	1981	정비석의 제주기 만덕			
1918	김석익의 탐라기년	1971	김태능의 김만덕전			
1932	김두봉의 제주도 실기	1989	이전문의 제주의 첫 여 인 만덕			
1954	담수계의 탐라지	1998	양중해의 김만덕의 자 선			
1968	석주명의 제주도수 필					
1973	한치문의 탐라실록					
1982	제주도지					
1985	제주시30년사					
1986	부영성의 구좌읍지					
1987	북제주군지					
1988	제주선현지					
	김찬흠의 제주사인 명사전					

①은 사실적 기록이라 여기는 쪽, ②는 그 인물의 전문학, ③은 그 덕을 칭송하는 시문학이다.

이 중 그 성격상 실제 있었던 일의 기록이라 할 것은 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이다. 다음으로 인정되는 것이 채제공의 만덕전 기록이다. 그 외로 주목되는 것이 만덕이 전 재산을 내놓기 전까지 제주 목사로 있었다는 심노승의 기록이다.

만덕전의 내용은 주지하다시피,

- ①만덕의 성은 김이고 제주 양가집 딸이다.
- ②조실부모하여 기생이 되다.
- ③20세에 관청에 하소연하여 양민으로 되돌리다.
- ④독신으로 재산을 늘려 부자로 이름이 나다.
- ⑤1795년 재산을 내어 곡식을 사다 10%는 자신의 친족을, 나머지는 도민을 구휼하다.
- ⑥임금이 만덕의 소원(금강산 구경 외)을 들어준다.
- ⑦1796 내의원 의녀의 행수가 되어 임금을 배알하다.
- ⑧1797년 금강산 구경하고, 생애 처음 부처를 보다.
- ⑨만덕 이름이 장안에 퍼지고 칭송하다.
- ⑩만덕이 떠날 때 채제공이 만덕전을 지어 건네준다.

이는 ‘김씨 집안 딸이 조실부모, 기생을 거쳐 양녀, 재물을 모아 흉년들 때 구호곡을 기증하여 그 덕에 상을 받고 만덕전에 남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일대기를 기록하는 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누가, 어느 성씨의 자손으로 언제 태어나 무슨일을 하다가 죽어 그 자손은 이렇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비석의 기록과 같다.

여기서 주인공의 일은 ‘무슨일을 하다가’ 공적을 남기든가 아니면 죽든가 했다고 한다.

아무리 악인이라도 죽으면 조문 가서 무릎 꿇고 절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고인에 대해 악담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에서 선행을 베풀면 그것 역시 후반부가 기록될 것이다. 오늘날 비문, 족보 기록 중에 이러한 사실에 반대되는 것이 없다는 점도 이 주장에 타당성을 갖게 할 것이다.

우리 선조들이 기록을 중시한 점을 고려하면, 실록 사실은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실록에 따르면 ‘만덕은 제주도 기생으로 재화를 풀어 기민을 구제하였다는 목사의 장계를 접하고 왕이 포상으로 금강산을 유람하게 하였다’고 한다.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러한 사실이 1981년 ‘정비석의 제주기 만덕’에 오면 소설로 나타난다.

발표자가 제시한 근거,

2) 자본주의 정신의 실천 (1)상도에 입각한 부의 축적에서 「만덕은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3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째, 이익을 적게 남기고 많이 파는 것, 둘째, 적정한 가격 매매, 셋째, 정직한 신용 분위가 그것이었다.(제주도, 1989, 34-36면)

(2)금욕과 검소한 생활태도에서 「풍년에는 흉년을 생각해 절약하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고생하는 사람을 생각해 하늘의 은덕에 감사하면서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만덕의 생활 철학이었다.(제주도, 1989, 36면)

2)기업가 정신의 진작 (1) 시대 변화를 읽는 통찰력과 개척 정신에서 「만덕은 객주를 중심으로 제주의 양반층 부녀자에게 육지의 옷감과 장신구, 화장품 등을 팔고, 제주 특산물인 미역, 전복, 표고, 양태, 말총, 녹용과 꿀 등을 육지에 팔아 시세 차익을 남겼다.(제주도, 1989, 34-36면)

이것은 제주도 출판으로 누가 책임을 지는지 알 수 없게 되어 있지만, 김봉옥의 김만덕전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0) 내용과 다르지 않다. 결국 김봉옥 선생이 1차는 제주도에서 내고, 2차는 자신의 이름으로 출간한 것이다.

김봉옥보다 20년 앞선 김태능의 ‘의녀 김만덕(제주도사론고, 김만덕기념사업회 요청으로 저술, 1971)’에 따르면 위 기록 내용과 같은 것이,

「장사하는 영업전략을 보면, 물자의 유통 경로와 교역에 대한 상식을 알게 되자, 기생 시절의 경험과 견문 등을 살려, 관청 용품, 관리 집안의 일용품 등을 비롯하여 기녀들의 의복감과 장신구와 화장품 등 특수인들이 쓰는 상품을 그들의 기호에 맞게 제공하고 제주와 육지의 물품을 필요한 곳에 수집·제공함으로써 큰 돈을 벌게 되었다. 특히 물건이 흔하여 가격이 떨어진 때에는 그것을 염가로 사 두었다가 품귀하거나 시세가 오르게 되면 고가로 팔아 이득을 보았다.」

고 하였다. 이로 보아 3가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김봉옥이 나름대로 세운 원칙인 셈이다. 그리고 보면 김소환 만덕의 생활철학 같은 것도 조냥정신에 맞게 재창조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상으로 보면, 오늘날 만덕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실록과 체제공의 기록을 제외하고, 문학화시킨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지금 논의들은 김태능 이후 작가들의 경제관, 기업가 정신 더 좁게 말하면 김봉옥의 경제관, 기업가 정신이라는 결론에 도달해 버리게 된다. 이러한 것은 그 이후의 양중해에게도 해당할 것이다. 18세기 만덕이 활약했을 당시 정보가 없이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자료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생존해 있는 분들의 견해를 듣는 자리도 필요하리라 본다.

둘째로, 지금의 자료를 그대로 인정하여 논의한다고 할 때, 만덕이 어떻게 돈을 그렇게 많이 벌 수 있었을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슷한 여건의 인물인 연암 박지원의 소설 허생전에서 허생의 예를 들고, 지금 논의되는 CEO의 기업운영 전략들이 당시 경영방법들임을 밝힌다.

박지원은 김만덕과 동년배(김만덕 : 1739-1812, 박지원, 1737-1805)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그의 작품 허생전을 통해 작가인 박지원의 경제관, 사회관 등을 살필 수 있다. 허생이 중상주의를 해석하는데 자료로 당시의 경영형 부농의 출현, 상공업의 발달, 신분제의 해체가 진행되던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끌어들인다. 그리고서는 실학과 박지원의 작가 의식이 투영된 작품이라고 한다. 물론 이것은 박지원이 18세기 후반에 살았고, 그 당시의 경제 흐름을 읽고 허생전이라는 작품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허생은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 허생이 거금을 벌게 되는 과정에서는 변씨에게 1만금을 빌려

안성에 내려가 과일장사를 시작하여 폭리를 얻고, 제주도에서 말총장사를 하여 많은 돈을 번다. 모두 매점매석이다. 하지만 상술일 따름이지 부정적이지는 않다. 그래도 이것은 소설이니까라고 해서 과소평가할 것이 아니다. 당시 경제, 무역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만덕이 돈을 벌었다는 것도 같은 시대 인물이니 같은 방법으로 해석하면, 그녀의 조냥정 신도 있었지만 전반적인 경제의 흐름을 빠르게 인식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첩경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녀의 능력이기에 높이 평가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돈버는 과정에서 있었을 지도 모르는 내용 즉, 심노승의 만덕전 기록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김준형은 <만덕 이야기의 전승과 의미>에서 심노승이 제주에 있을 때 ‘직접 만덕의 얘기를 상세하게 들었는데’라 하며, 만덕에 대해 비판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심노승의 계심전(1736-?)에 있는 만덕전 내용을 그대로 따른다면, 「만덕은 자신의 욕심, 즉 서울과 금강산을 구경하기 위한 욕심 때문에 재산을 내어 도민을 구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만덕이 치부를 하게 된 것도 무역업이나 매점매석이 아닌 기생으로 있으면서 돈이 많은 상인을 쫓아 돈을 빼앗고, 돈이 떨어지면 버리는 형태로 치부를 한 것이다.」고 혹평하고 있다.

이 기록은 심노승 이후 누구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 한 인물에 대해 긍정적 평가만을 수용하는 것은 어딘가 찜찜하다. 목사까지 지냈던 분의 기록이 허언일까. 마치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 심노승은 소론, 채제공은 남인이었으니까 채제공에 대한 반감 때문일 것이라는 답은 너무 단선적이다. 채제공이 지배이데올로기 이념에 부합되게 행동한 즉 굶어 죽어가는 백성을 구휼했다는 만덕의 행위 결과만을 칭송하여 어두운 면은 차치하고 만덕전을 쓴 것은 아닐까. 제주에서 보고한 내용을 참고해서 만덕전을 기록했을 것이므로 제주도에 올리는 기록 역시 좋은 내용만을 넣었을 것이라 본다. 오늘날 표창을 받기 위해 올리는 공적조서와 같은 것이다.

만덕이 금강산 구경 중 「금불상을 만나면 정성을 다하여 배례하였고 공양을 하였다. 대저 탐라국에는 불법이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므로, 만덕은 나이가 58세인데, 여기에 와서 처음으로 사찰과 불상을 본다고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제주목 주위에 유수한 절들이 있었음은 알려진 사실이어서 이것 역시 의도적인 기술이겠다.

이상으로 보아 채제공의 기록만으로는 만덕에 대한 바른 평가가 미진하다고 본다. 심노승의 견해를 보완하여야 하지 않을까.

셋째, 만덕은 전 재산을 내어놓아 제주민의 1/3을 구휼하였기에 칭송받는다. 그녀도 제주민의 한 구성원이기에 제주문화 속에서 한 인간의 모습을 추정하여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조상숭배, 풍수지리 같은 민간신앙적 의식이 오늘날과 달리 18세기는 더욱 강하였을 것이다. 제주도 가문들을 보면, 혼인을 하지 않고 죽으면 형제들은 양자를 받아들여 조상에 대한 제사를 이어간다. 그 양자는 조상이 살았을 때 이어주고, 양부모는 양자에게 부모로서의 의무를 하게 한다. 즉 재산을 물려주는 과정이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 대단한 부자가 물려주었다는 재산 이야기가 없고 구휼이라는 과정을 통해 사회에 환원했다.

만덕이 1812년 10월 22일 죽고 1달이 지나 11월 21일에 세워진 구묘비문 기록에서 「비록 옛 적에 착하고 아리따운 여자라 하더라도 무릇 방불케 하였고, 다만 천도가 무심하여 아이가 없는 게 애석하다. 그러나 ‘양손 시체가 동기간에서 출계하여 유지를 잘 지키고 영구히 향화’하니 또한 섭섭하지 않게 보답하고 있다. 」

이것을 보면, 양자가 아니라 양손이며, 1달이 지났는데 영구히 향화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가 곤란하다. 또 제주도민들을 굶주림에서 구출해 준 생명의 은인이라면 그 업적이 구전되거나, 부자의 재산을 물려받은 양손 시체에게 부러움을 갖는 이야기들이 있음직도 하건만 설화에 서는 찾을 수 없다. 오늘날 현대가문은 누구로부터, 삼성가문은 누구로부터 하는 식으로 줄 줄 꿰는데, 하물며 생명을 구해준 자에 대한 구전내용이 없는 것은 어떤 일일까?

있는 사실에 대한 평가는 엄격해야지 포장되어서는 곤란하다.

“ 김만덕의 삶을 통해 본 정신적 가치의 탐색 ” 토론문

문 혜 경 (제주대학교 사학과)

‘김만덕 삶에 관한 현대적 관점에서의 재평가’는 한 여성의 전기적(傳奇的) 접근을 뛰어넘어 그녀의 삶이 지닌 현대적 의미를 다양한 측면에서 조망해 보고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김만덕의 삶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평가하는 작업에서 필자는 “정신적 가치의 탐색”이라는 주제 하에 경제적인 요인으로 자본주의 정신을 부각시키고 있다. 즉 서구의 자유방임주의 사상과 프로테스탄티즘에서의 자본주의 덕목과 기업가 정신을 김만덕의 경제활동과 비교하면서 논의하고 있다. 이에 토론자는 몇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다.

1. 서구의 자본주의 정신을 도입하여 김만덕의 삶을 분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18세기 제주인들의 사회적, 경제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현실인식을 갖고 있었는지에 관한 설명이 있어야만 자본주의 정신과의 관련이 이해될 것 같다. 물론 본문과 결론에서도 언급되고 있지만, 요컨대 정조시대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제주도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2. 김만덕의 구휼행위와 경제활동이 자본주의 정신에서 발현되거나 혹은 성공적인 여성 CEO로 평가받을 수 있는 행위로 여겨질 수 있지만, 당시 만덕은 어떠한 의도도 없이 자신의 부모의 죽음과 자신을 돌봐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남을 돕는데 앞장을 섰기 때문에 오히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행동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3. “풍년에는 흉년을 생각해 절약하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고생하는 사람을 생각해 하늘의 은덕에 감사하면서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는 만덕의 생활 철학에서 자본주의 정신을 실천한 것보다는 제주의 ‘즉량’ 정신을 더 강조하여야 할 듯하다.

4. 만덕은 여성의 한계를 뛰어 넘어 한 인간으로서 인간보편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정신적 가치의 탐색”을 경제적인 면 이외에 ‘유교적’인 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완을 통해 김만덕을 영웅시 여기거나 혹은 신화 만들기에서 벗어나 ‘김만덕의

삶'에 대한 진정한 조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김만덕 콘텐츠 개발과 제주 경제의 활성화 방안

정창권²⁾

1. 개발 목적

조선시대 서민층 여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역시 김만덕이다. 그녀는 당시 새롭게 부각되던 유통업을 통해 수천금을 모은 여성사업가(CEO)이자, 애써 모은 돈을 서슴없이 내놓아 수천 명의 목숨을 구한 사회사업가였으며, 서울에 올라가 왕과 왕비 및 공경대부들을 만나고, 또 남자들도 좀처럼 하기 어려운 금강산 구경을 다녀오는 등 희대의 여성영웅이었다. 그녀는 18세기 제주에 살았던 한 여인이었지만 중앙에까지 널리 알려져 일세(一世)의 화제를 모았던 역사적 인물이었다. 16세기 신사임당과 허난설헌, 17세기 안동장씨 등이 일부 상류층 집안을 중심으로 알려졌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별되는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김만덕은 조선시대 제주의 한 거상(巨商)일 뿐이었다고 매우 가볍게 여겨지고 있다. 그것도 이 분야를 전공하는 역사학이나 국문학, 여성사 전공자 등 소수의 지식인들만 알고 있는 형편이다. 심지어 제주 사람들마저도 “김만덕이 누구예요?” 하고 물으면, “아~ 만덕! 할망이지 누구야” 라고 신화적인 인물로만 인식하고 있다. 그녀가 언제 어디서 살았고, 무슨 일을 어떻게 했으며, 왜 중요한 인물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정작 별로 없다는 것이다.

어디 그 뿐이겠는가. 김만덕의 행적을 쉽게 알려주는 책들, 예컨대 인문서나 동화, 만화 등이 아직까지 한 권도 나와 있지 않다. 그래서 어른들은 물론 어린이들조차도 김만덕에 대해 알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으며, 김만덕을 토대로 전시나 축제, 공연, 드라마, 영화 같은 것을 만들고 싶어도 감히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강릉이나 경주, 안동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어떠한가. 단적인 예로써, 강릉시는 울곡과 신사임당의 유적지를 대대적으로 개발하여 관광상품화하고, 그들의 생애나 작품을 동화나 만화, 단행본으로 출간토록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매년 울곡제와 같은 축제를 열어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관광산업의 진흥에도 힘을 쏟고 있다.

물론 김만덕을 다룬 영상물로는 1976년 MBC의 <정화>라는 드라마와 2003년 EBS의 <의녀 김만덕>이란 역사극장, 그리고 만화로는 김재희 작가가 그린 <고래 만덕>이 있다. 이 작품들은 시간이 많이 지났거나 널리 알려지지 않는 않지만, 향후 김만덕을 영상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리라 판단된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김만덕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³⁾를 개발해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는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인 김만덕 관련 단행본과 출판만화를 우선적으로 제작하고자 한

2) 고려대 초빙교수(국문학). 이 발표문은 김만덕의 학술적 고찰보다 콘텐츠 개발방안에 대한 내용이므로, 일종의 기획서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저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 그녀의 행적을 역사적으로 자세히 고찰하면서도,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도서들을 먼저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김만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앞으로 전시나 축제, 공연, 드라마, 캐릭터 등 각종 문화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되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기존 관광 도시로서의 제주의 위상을 역사와 문화 도시로까지 확대시키는데 일조(一助)를 하고자 한다.

2. 개발 필요성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한다. 앞으로는 문화가 바로 국가와 지방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국의 중앙이나 지방 정부는 자신들에게 적합한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하나의 제대로 된 콘텐츠는 그 지방의 이미지를 강화시켜줄 뿐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의 소득증대, 고용창출 등 경제적 효과도 톡톡히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현재 한국도 각 지방단체들이 자기 지역을 대표할만한 인물이나 문화행사를 발굴하여 콘텐츠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수원의 실학축전, 안동의 국제탈춤 페스티벌, 강릉의 단오제나 울곡제, 금산의 인삼축제, 함평의 나비축제, 경주의 세계문화엑스포 등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최근 한국은 특성화된 지방문화에 대한 관심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 역시 지역 문화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제주만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또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래 제주는 역사가 매우 깊고, 다른 지역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특수한 신화와 언어, 문화 등 많은 콘텐츠 자원들을 갖고 있다. 그중에서도 김만덕은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급격히 부각되고 있는 인물이다.

앞서 말했듯이, 김만덕은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 아니 남녀를 초월한 모든 사람들의 한 역할 모델이자, 제주가 갖고 있는 중요한 역사적 콘텐츠의 한 자원이다.

근래 각 분야의 제주 인사들이 김만덕을 새롭게 되살리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학계에서 워크숍을 열어 김만덕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해보고자 한 일이나, 김만덕기념사업회에서 이러한 학계의 작업을 열성적으로 후원했던 일, 또 새로운 화제인물로 선정되도록 적극 추진했던 일은 그 좋은 예라 할 것이다.

분명 김만덕은 제주가 새롭게 내세울만한 역사적 인물로서의 자격을 충분한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김만덕을 현대화·대중화하기 위한 각종 문화콘텐츠 개발이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김만덕에 관한 단행본과 만화를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전시나 드라마, 공연, 캐릭터 같은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제주는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주로 관광과 휴양의 도시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해외 여행이 날이 갈수록 대거 늘어나면서, 과거와 같은 관광지로서의 위상과 호황을 계속 누리기에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제주가 기존 관광 도시로서의 면모와 함

3) 콘텐츠란 디지털시대가 도래하면서 새롭게 쓰이는 유행어인데, 쉽게 말해서 ‘내용물’, 특히 디지털시대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내용물’을 일컫는다. 보통 콘텐츠는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와, 그를 뒷받침해주는 재미있고 감동적인 스토리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문화콘텐츠**는 콘텐츠를 담는 그릇들, 곧 영화나 드라마, 게임 같은 각종 대중매체(문화상품)를 말한다.

게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새로운 면모도 점차적으로 갖춰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김만덕 콘텐츠 개발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가 아닌가 한다.

3. 개발 내용 및 방법

조선시대 서민층 여성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은 경상도 선산지방의 향량과 제주도의 김만덕이다. 그런데 향량은 17세기 이후 강화되는 가부장제 사회의 대표적 희생자라면⁴⁾, 김만덕은 18세기 후반 거상이 되어 자신의 뜻을 이룬 가장 대표적인 성공한 여성이었다⁵⁾.

이에 따라 필자는 김만덕을 콘텐츠로 개발하여 널리 알리기 위해 몇 해 전부터 계속 자료 수집과 분석을 병행해왔다. 그리고 지난 2004년 4월엔 제주 YWCA에서 주최한 초청강연회를 통해 김만덕에 대한 제주도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김만덕 관련 예비답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 그해 9월엔 대중교양지 『좋은생각』에 김만덕에 대한 짙막하고 핵심적인 글을 기고하였다. 나아가 2005년 4월엔 몇몇 뜻있는 제주인의 후원으로 고려대학교 문화콘텐츠연구회 회원들과 함께 제주 현지답사를 실시하였다⁶⁾.

물론 필자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회원들 사이에서 김만덕 콘텐츠 개발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김만덕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 및 콘텐츠화 방안에 대해 계속 토론했다. 필자가 이번 작업을 혼자서 진행하지 않고 특별히 개발팀을 구성한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작업하면 다양한 아이디어와 흥미거리를 찾아낼 수 있고, 그결과 대중성 확보에 매우 유리하기 때문이다.

본래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선 유행을 창조할 만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그를 뒷받침해주는 재미있고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또한 제대로 된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선 출판과 만화, 전시/공연, 영상,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 전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어느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최근 문화콘텐츠는 하나의 소스를 개발한 뒤 그것을 다른 장르에 적용하여 파급효과를 높이는 원소스 멀티유즈(one-source multi-use)의 형태를 띠고 있다. 예를 들어 얼마전 국내에서도 개봉되어 호평을 받은 <스타워즈> 시리즈의 경우, 먼저 영화로 개발한 후 소설, 만화, 방송, 애니메이션, 비디오 게임, 음반, 캐릭터 등 다양한 분야로 연계하여 엄청난 파급효과를 얻었다. 특히 스타워즈의 연계 상품들은 영화의 단순 재활용이 아닌 각 분야별 고유한 특성을 잘 살렸으며, 배경이나 사건도 서로 일관성을 가지도록 철저히 관리되었다.

우리도 역시 기획단계부터 단행본과 만화 뿐 아니라, 전시나 드라마, 공연, 캐릭터 등 다양한 분야로의 연계를 생각하고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한다. 그래야만 김만덕이 하나의 역사적 인물로서 국내외에 널리 알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김만덕 콘텐츠화 과정을 도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4) 정창권, 『향량, 산유화로 지다』, 풀빛, 2004.

5) 정창권, 널리 덕을 베푼 여인 만덕, 『좋은생각』, 2004년 9월호.

6) 제주도 현지답사는 생활체육 제주시합기도연합회장이신 정창남 님과 학산종합건설 대표이사이신 강성훈 님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두 분의 제주에 대한 깊은 사랑에 존경을 표하는 바이다.

1차 원소스 개발 : 단행본, 출판만화	
2차 멀티유즈화 : 전시, 드라마	
3차 기타 개발할 만한 문화콘텐츠 : 공연, 캐릭터와 애니메이션, 게임, 여행상품과 관광기념품, 번역작업	

1) 1차 원소스 개발

(1) 단행본

대체로 세계적인 문화콘텐츠, 예컨대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 <에반게리온> 등을 보면, 소설이나 만화 같은 원작을 토대로 제작된 경우가 많다. 우리도 역시 김만덕 콘텐츠 개발을 단행본과 만화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그래야만 김만덕의 역사적 의의가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후 제작될 각종 문화콘텐츠를 나름대로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단행본은 딱딱한 설명이나 논문체가 아닌 이야기체, 곧 사건을 극적으로 재현하여 재미있게 들려주고자 한다. 사실 필자는 지금까지 『홀로 베틀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2003, 사계절), 『향량, 산유화로 지다』(2004, 풀빛),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2005, 문학동네) 등에서 보여준 것처럼, 딱딱한 설명체보다 부드러운 이야기체 글쓰기를 선호해왔으며, 그래서인지 독자들로부터 적잖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이번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체를 구사하여, 이후 전개될 전시나 드라마의 원작으로서 활용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하나(一)를 가지고 열(十)을 말하며, 삶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전달하는 방법인 미시사·생활사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즉 김만덕이란 한 사람의 진솔한 인생 이야기를 통해 동시대 제주의 역사, 더 나아가 조선의 역사까지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도 김만덕과 제주 관련 문헌이나 유물, 고지도, 교회화, 답사사진 등 다양한 시각자료를 첨부하여 이후 전시나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아주 긴요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한편 콘텐츠를 개발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스토리텔링, 곧 캐릭터 설정과 스토리 짜기에 있다. 사실 모든 콘텐츠의 성패 여부는 여기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자가 보기에 김만덕 캐릭터는 초기엔 역척스러움이 느껴지고, 후기엔 관음보살 같은 관대함이 느껴진다. 그러다보니 전체적으로 인상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데, 이에 필자는 의도적으로 만덕 주변인의 코믹한 제스처나 에피소드를 간간히 삽입하여 긴장을 이완시키고자 한다. 왜냐하면 날이 갈수록 대중들의 트렌드는 무겁고 진지한 것보다는 가볍고 재밌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그렇다고 김만덕의 역사성을 파괴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것은 맹자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의 권도(權道)일 뿐이다).

또한 스토리라인은 김만덕의 일생을 순차적으로 밋밋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거상(巨商)으로 성장하는 과정(상업사)과, 그 이후 자신의 재산을 서슴없이 내놓는 장면(구출)을 중심으로 빠르고 드라마틱하게 펼쳐가고자 한다. 기타 어린시절과 기녀생활은 중간중간 대화로써 들려주고, 말년의 상경과 금강산 구경은 돌아온 지 1년 후의 한 장면을 통해 에필로그로 처리하고자 한다.

(2) 만화

만화도 또한 접근 방식이나 작품 성격은 기본적으로 단행본과 유사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만화는 아이들이 보는 책이라는 인식이 현실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주요 소비층인 아이들에게 맞추어 개발해야 한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프레임도 큼직하게 나누어 한눈에 들어오도록 하고, 많은 정보를 담으려는 욕심보다는 우선 김만덕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자 한다. 한마디로 요즘 아이들이 많이 보는 학습만화를 생각하면 될 것이다.

스토리텔링도 단행본과는 약간 다른데, 우선 캐릭터는 만화의 성격에 맞게 사실을 중심으로 하되 약간의 영웅화가 필요하다. 스토리 또한 아이들의 흥미를 감안하여 역사적 사실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화적 비약이나 과장을 넣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공개하긴 어렵지만, 대체로 현대 인물들이 과거 김만덕과 제주의 역사를 하나씩 알아간다는 형식이다. 그렇지 않으면 위의 단행본을 만화의 특성에 맞게 각색하여 제작하고자 한다.

2) 2차 멀티유즈화

우리의 당면 목표는 1차인 원소스 개발에 있다. 하지만 김만덕 콘텐츠는 기획단계부터 원소스 멀티유즈를 표방한 만큼, 2차 활용인 멀티유즈화에 대해서도 미리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대개 2차 활용은 인기있는 작품의 캐릭터나 스토리를 재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단순 재활용이 되어서는 안 되고, 각 분야별 고유한 특성을 잘 살려서 그 나름의 독자성을 부각시켜야 한다. 한마디로 서로 유사하되, 매체의 특성에 따라 각색·변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2차 활용은 분야별 전문 기업과의 제휴로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 요즘처럼 전문화된 시대에 원소스 개발자가 전분야의 문화콘텐츠를 제작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설령 전문가를 영입하여 제작한다고 해도 노하우나 마케팅 능력의 부족으로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런 점들을 유의하고 2차 활용을 진행할 것이다.

(1) 전시

요즘 주5일제 근무의 확산으로 가족단위의 문화체험관이 점점 인기를 끌고 있다. 우리도 이 점에 착안하여 2차 활용의 하나로 우선 전시회 개최를 고려해 보았다. 여기서 전시는 단순히 전시 그 자체만으로 한정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큰 이벤트인 축제와 연계하여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 전시는 웹 사이트와 함께 사이버 전시관을 별도로 꾸미고 있다는 점도 염두할 필요가 있다.

전시도 역시 스토리텔링이 가장 중요한데, 기존처럼 정보를 유형별로 나열해두고 관람객에게 무작정 지식만을 전달하려는 지루한 전시회가 아니라, 미국의 테마박물관들처럼 하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시물을 구성하여 관람객의 감동을 이끌어내는 일종의 축제와 같은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예컨대 1차 단행본이나 만화 등 원작을 바탕으로, 그 캐릭터에 따라 이야기를 들려주듯 전시물을 배치하면, 관람객은 흐름을 따라가면서 마치 자신이 주인공인 것처럼 간접 체험을 할 것이다. 그래서 전시를 다 보고나면 마치 한편의 영화를 보고난 느낌이 들 것이다.

물론 전시의 스토리텔링은 원작을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다. 특히 김만덕 관련 자료는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전시의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김만덕과 제주 역사전’이란 테마로, 1차 작업시 수집한 문헌이나 유물, 고지도, 교회화 등 각종 시각자료만이 아니라, 동시대 제주의 역사, 특히 상업사와 생활사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함께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또 자료가 부족하거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삽화(풍속화)나 만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영상물 등으로 제작하여 앞의 사실적 자료들과 함께 조화롭게 설치하면 될 것이다.

끝으로 사이버 전시관은 남원시에서 제작한 ‘춘향’ 사이트와 함평군에서 제작한 ‘함평 나비축제’ 등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듯하다. 대표적으로 ‘춘향’ 사이트는 <춘향전> 텍스트만이 아니라 그 연구성과물, 남원지역의 제반 특성과 생활문화, 영화나 음악 같은 멀티미디어물, 게임형식의 학습과 퀴즈코너 등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갖추고 있다.

(2) 드라마

한국에서 드라마는 영상물의 꽃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대중매체 중의 하나이다. <대장금>이나 <겨울연가>가 보여주었듯이, 드라마는 특정 인물이나 지역의 이미지 상승효과만이 아니라, 관광객 유치, 특산물 판매, 고용창출 등 많은 부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자기 지역에 드라마 촬영을 유치하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보기에 김만덕 콘텐츠는 앞의 매체들로 여론의 관심을 불러모은 뒤, 곧장 드라마로 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듯하다.

물론 최근 드라마는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발전하여 엄청난 인적·물적 투자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김만덕은 행적도 특이하고 요즘 트렌드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원작의 스토리가 탄탄히 짜여지고 제주도청과 김만덕기념사업회 및 제주도민들이 합심하여 계속 추진한다면, 공중과 방송에서의 드라마화도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본다. 그리고 시청자들도 남쪽 섬 제주의 한 객점에서 펼쳐지는 우리네 민초들의 생활상을 한번쯤 보고싶어할 것이다.

원작을 시나리오로 각색하는 작업도 결코 만만치는 않으리라 본다. 특히 요즘 드라마의 스토리텔링은 얼마전에 종영된 <해신>에서 보았듯이 화려한 볼거리와 빠른 전개, 그리고 <쾌걸춘향>에서처럼 코믹하고 유머러스한 대사와 에피소드가 특색이다. 또 액션이나 로맨스, 가족애 등 다양한 장르를 결합하는, 이른바 퓨전물이 인기를 얻고 있다. 우리도 이 점에 유의하여 원작을 각색할 예정인데, 필요할 경우 전문 시나리오 작가를 영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아예 원작의 드라마화 권한을 프로덕션에 넘기려고 한다.

3) 3차 기타 개발할 만한 문화콘텐츠들

이밖에도 김만덕 관련 문화콘텐츠로 개발할 만한 것들은 대단히 많다. 물론 이것들은 선행 문화콘텐츠의 성패 여부에 따라 계속 개발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 입장에서

야 계속 개발되어 김만덕을 한국사의 또다른 위인으로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하지만, 불행하게도 문화콘텐츠는 예측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3차 콘텐츠 개발 과제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공연

김만덕의 행적 중 하나의 사건을 특화시켜 연극이나 뮤지컬로 제작하는 것이다. 사실 인물 전기 뮤지컬이라 할지라도 주인공이 살아온 인생 전체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주인공의 행적 중 가장 드라마틱한 전환점을 겪었던 어떤 사건이나, 아니면 길게는 10년, 짧게는 1년 정도의 시기만을 부분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한편의 영화로 제작한다면, 그것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2) 캐릭터·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 또한 완구나 인형, 기타 각종 캐릭터 부착 상품으로 꾸준히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 그러므로 캐릭터는 귀여운 디자인으로 쉽고 간단한 모습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애니메이션도 김만덕의 인지도를 넓히는데 매우 효과적인 분야이다. 다만 그 내용이나 장르에 따라 제작비의 차이가 심한 편인데,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은 막대한 자본을 투자한 블록버스터형이 아니라 20~30분 정도의 짧고 유니버스형 TV애니메이션이 적합할 듯하다.

문제는 캐릭터나 애니메이션의 스토리텔링이다. 우선 캐릭터는 1차 만화가 어느 정도 알려진다면 그것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캐릭터 디자이너에게 의뢰하여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캐릭터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 애니메이션도 역시 만화를 원작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꼭 원작을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 애니메이션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각색과 변신을 시도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3) 게임

요즘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가 바로 게임이다.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누구나 하나쯤은 잘하는 게임이 있으며, 이것을 여가생활의 일종으로 즐기고 있기 때문이다.

김만덕 콘텐츠도 만화나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한 온라인, 비디오, 모바일 게임을 제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김만덕이 거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게임으로 개발해볼 만한데, 아직은 고민 중에 있다.

(4) 여행상품·관광기념품

김만덕 콘텐츠 관련 여행상품으로는 제주 목관아지와 향교, 화북과 조천 포구, 김만덕기념관, 용두암, 한라산, 말목장 등이고, 만약 드라마화가 실현된다면 그 촬영지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관광기념품으로는 제주의 특산품인 다양한 종류의 굴들, 전복, 갈치, 선인장 등과, 우리가 개발할 예정인 비둘기 젓가락(장수를 의미함), 김만덕 캐릭터를 활용한 많은 상품들을 들 수 있다.

우리는 이것들을 원소스 개발단계부터 작품 속에 적절히 삽입해서 그 유래와 중요성까지 소개하는 등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5) 번역작업

현대는 국제화 시대이고, 특히 제주는 국제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출입이 매우 잦다. 그러므로 1차 단행본과 만화를 최소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3개 국어로 번역·출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각국 도서관에 기증하는 한편 국내외 항공사와 여행사에 배포한다면, 제주가 관광만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의 도시로도 널리 알려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본다.

4. 개발 인원과 일정 및 소요 예산

우리는 김만덕 콘텐츠를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공동작업으로 개발하고 있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흥미거리 및 원소스 멀티유즈를 실현하기 위해선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공동작업은 개개인의 역량 차이로 시간이 더 걸린다는 단점도 있지만,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작품의 완성도에 있다고 본다. 김만덕 콘텐츠의 1차 원소스 개발에 참여하는 인력과 그 일정표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단행본은 필자와 윤종선(고려대 대학원 국문과 박사과정)이 함께 개발하고 있는데, 자료 수집과 분석 및 개요를 작성한 후 지금은 한 장면씩 토론하면서 이야기짜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집필은 필자가 앞에서 해나가고, 윤종선이 뒤에서 수정·보완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개발 일정은 8월말까지 모든 집필을 끝마치고, 11월말까지 두세 차례의 수정작업과 시각자료를 첨부하여 최종 원고를 출판사에 넘긴 뒤, 2006년 3월 이전엔 출간할 예정이다. 출판사는 현재 문학동네의 자회사인 북하우스, 한얼미디어, 푸른역사, 황매 등이 계속적으로 원고의 완성 여부를 묻고 있다.

다음으로 만화는 단행본에도 참여하는 윤종선과 노혜진(한양대 대학원 석사졸업예정), 유정완·윤성환(고려대 대학원 문화콘텐츠 석사과정), 김완규(고려대 무역학과 4학년) 등이 시나리오를 쓰고, 필자가 그 감수를 맡고 있으며, 주경훈 작가가 콘티작업을 거쳐 만화로 옮기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에도 『호잇! 고려러』(황매)란 학습만화를 직접 제작한 바 있는 경험자들이다.

현재 만화는 자료 수집과 분석 및 개요작성을 끝마치고, 1)유년기, 2)기녀생활, 3)상업과 구휼, 4)한양과 금강산 구경 등 네 부분으로 나누어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다. 개발 일정은 9월말까지 최종 시나리오 작업을 마치고, 2006년 1월말까지 콘티와 만화 작업을 마친 뒤, 2006년 5월 이전에 출간한다는 계획이다. 출판은 단행본과 같은 회사에서 하기로 했다.

끝으로 소요 예산은 역시 인건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오로지 좋은 콘텐츠를 개발해보겠다는 일념으로 아무런 조건없이 묵묵히 일하고 있는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하지만 앞으로 해야 할 문헌과 고회화, 고지도, 유물 등 각종 시각자료 구입비(저작권 포함), 만화의 채색작업비, 일부 회원만의 최종 답사비, 그리고 2차 활용을 위한 회의비나 활동비가 크게 부족해서, 이번 콘텐츠 개발의 발의자이자 책임자로서 적잖이 걱정된다.

1차 원소스 개발 일정표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단행본	집필완료										
			수정작업 및 시각자료첨부								
						출간					
만화	시나리오 작성										
				콘티 · 원화 · 채색 작업							
								출간			

5. 기대효과 및 개발의의

김만덕은 제주의 중요한 역사 콘텐츠 자원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김만덕을 콘텐츠로 개발하려는 시도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우리는 원소스 멀티유즈의 형태로 총3차에 걸쳐 김만덕 콘텐츠를 하나씩 개발하고자 한다. 1차에서는 김만덕과 제주의 역사를 생생하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단행본과 만화를 개발하고, 2·3차에서는 그것들을 토대로 전시와 드라마 뿐 아니라, 기타 공연, 캐릭터와 애니메이션, 게임, 여행상품과 관광기념품, 번역작업 등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로써 김만덕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은 김만덕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와 개발의의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김만덕의 화폐인물 선정이다.

현재 고두심 공동대표를 비롯한 김만덕기념사업회는 새 화폐인물로 김만덕이 선정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김만덕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시점에서 김만덕을 콘텐츠로 개발해서 널리 알린다면 화폐인물로 선정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둘째, 제주의 이미지 상승효과이다.

이번 콘텐츠 개발은 비단 김만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제주의 역사까지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 그래서 현재 관광과 휴양의 도시로 알려져 있는 제주의 위상을 역사·문화의 도시로까지 확대시키고자 한다.

셋째, 경제적 효과이다.

김만덕 콘텐츠 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우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다. 우리는 1차 원소스 개발과 제인 단행본과 만화에서부터 제주의 자연환경과 생활사, 유적지 등을 각종 시각자료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줄 것이다(필자가 현장답사를 매우 중시하는 이유도 한편으론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누구나 한번쯤 제주에 가보고픈 마음이 들도록 유도하려고 한다. 즉 기존의 관광안내책처럼 딱딱하고 틀에 박힌 방식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편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자연스럽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그와 함께 우리는 김만덕 콘텐츠 속에 굴이나 전복, 갈치 등 제주의 특산물을 적절히 삽입하여 무의식 중에 홍보를 함으로써 그것들의 판매를 촉진시키고자 한다. 또한 비둘기 젓가락이나 김만덕 캐릭터를 활용한 신상품 개발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제주 도민의 고용창출과 소득증대에도 최대한 기여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별로 독특한 인물이나 문화행사를 발굴하여 새로운 콘텐츠로 개발하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해마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한편 자연스런 방식으로 그 지방 특산물을 판매함으로써, 해당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마디로 그들은 이제 관광이나 특산품 판매도 철저하게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김만덕 콘텐츠의 개발 의의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김만덕 콘텐츠 개발과 제주 경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

김순자(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제주여성사정립분과위원장)

김만덕(1739~1812)이 남긴 업적과 숭고한 정신은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기 때문에 김만덕기념사업회 뿐만 아니라 전국의 역사학자, 국문학자, 여성학자 등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만덕기념사업회에서 당당하게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액권 발행 및 화폐도안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하여 당당히 김만덕을 새 화폐 도안인물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었다고 본다.

오늘 학술 세미나에서 김만덕 콘텐츠 개발 의미와 방향 등에 대해서 토론을 나눌 수 있는 것도, 김만덕이 시대를 초월하여 그가 남긴 업적과 정신이 과거, 현재, 미래로 계승할 수 있는 입지전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거칠게 표현하면, 김만덕의 ‘상품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상품 내용도 중요하지만 포장도 그럴 듯 하게 해야 한다. 김만덕 콘텐츠 개발이야말로, 바로 김만덕이란 상품을 어떻게 포장하고 홍보할까를 놓고 고민하고 논의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발표된 김만덕 관련 각종 자료와 지난해 열린 김만덕기념사업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제주도에서 발간한 『의녀 김만덕 활약상 자료조사 연구보고서』에서 잘 드러나 있듯이, 김만덕의 생애 자체는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독특한 삶이어서 시대와 역사를 뛰어넘어 주목 받을 만하다.

가난 때문에 양인의 신분에서 기적에 올려졌다가 부당함을 깨닫고 관가에 호소에 양인으로 신분을 회복한 일, 기적에서 풀려난 후에는 객주를 차려 유통업 등을 통해 엄청난 재산을 모은 성공한 여성 기업가, 평생 모은 재산을 풀어 기아에 허덕이는 백성을 구휼한 일, 출륙금지령을 깨고 여성의 신분으로 당당하게 조정과 전국 각지의 관아의 도움을 받으면서 임금을 배알하고 금강산을 구경한 일, 내의원반수를 제수 받은 일 등등. 이와 같은 만덕의 행한 업적과 모험심, 진취적인 삶의 태도는 여성의 사회 활동이 제약되었던 당시로서는 엄두도 못 낼 일일 뿐만 아니라 금기와 맞서 이뤄낸 김만덕의 업적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계승 발전해야 할 덕목이다.

김만덕의 이러한 당당한 행적과 숭고한 뜻은 지역을 뛰어넘어 전국적인 화제가 되어 왕과 왕비, 공경대부, 백성들의 칭송의 대상이 되었고 만덕을 칭송하는 글이

지어져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남긴 숭고한 업적과 정신, 실천력이야말로 여성과 남성을 불문하고 이 시대를 사는 이들이 모두 본받고 계승해야 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만덕의 업적과 정신을 널리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다. 그렇다고 김만덕이 영영 잊혀져 왔던 것은 아니다. 김만덕 당대는 물론이고 그 후에도 문인과 학자, 향토사가들에 의해 꾸준한 관심을 받았지만 대중화·전국화 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녔을 뿐이다.

혹자는 김만덕이 위와 같은 엄청난 업적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고 걱정한다. 그러나 본 토론자는 200년이 지난 역사적 인물을 이만큼이나 조명 받을 수 있는 것은 김만덕이 그만큼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마땅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제주도민의 10분 1이상이 희생된 현대사에서 일어난 엄청난 사건이었던 1948년 ‘제주 4·3 사건’도 수면 위에서 논의 된 것은 불과 십 수년에 불과하다. 하물며 200년 전 사건으로, 그것도 양민의 신분으로 여론 주도층이 아닌 여성 개인의 역사가 이만하게 남아있다는 자체 만으로는 우리는 평가할 만하다.

제주에서는 오래전부터 김만덕 기념사업을 해왔다. 1977년 ㄱ오니모루에 있던 만덕묘가 묘충사로 이전되면서 김만덕 기념비가 세워졌고, 1987년 7월 14일에는 만덕기념관이 문을 열었다. 또 1980년부터 만덕봉사상을 제정해 매년 1명씩 선정, 제주전통문화축제인 탐라문화제때 ‘만덕봉제’를 지내면서 시상하고 있다.

1991년 12월에는 제주도립민속예술단(현 제주도립예술단)이 만덕의 일대기를 무용극화한 『만덕송가』를 무대화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행정이 주체가 되어 30년 가까이 만덕기념사업회를 벌이고 있었음에도 김만덕의 숭고한 뜻과 업적이 대중화·전국화에 기여하지 못한 것은 ‘단순히 기민구홀’이라는 자선사업에 초점을 두고 만덕을 바라봤을 뿐 만덕의 뜻을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데는 소홀하였다는 반증이다.

그런 의미에서 늦었지만 김만덕 기념사업회의 활동이나 뜻있는 학자 등이 주축이 되어 벌이는 재조명사업은 평가받을 만하다. 정창권 선생님이 주축이 되어 개발하는 ‘김만덕 콘텐츠 개발’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정창권 선생님이 지적했듯이 현재 김만덕의 행적이 기록된 자료는 학자와 향토사가들이 중심이 되어 펴낸 책과 논문이 있을 뿐 인문서나 만화·동화 등 김만덕의 행적을 쉽게 알려주는 책이 출간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김만덕 관련 단행본과 학습 만화 출판을 시급히 해야 할 과제라는 정 선생님 말에 공감하면서 책 출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또 단행본과 만화 출판뿐만 아니라 전시나 드라마 공연 캐릭터 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의 콘텐츠 개발이 가능하다는 정 선생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는 바이다.

그러면서 토론자는 제주에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문화 사업으로, 제주의립예술단과 제주시립예술단을 활용한 무용극과 뮤지컬, 오페라 제작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탐라문화제 때 거행하는 만덕봉제를 만덕을 전국화 할 수 있는 행사로 키워내는 한편 만덕봉사상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만덕의 업적과 정신을 이어받은 여성을 찾아 시상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만하다. 또 만덕전시관을 활용해 다양한 전시활동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일련의 사업을 위해서는 김만덕 기념사업회와 제주도과 제주시 등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오늘 주제발표와 관련해, 정창권 선생님께 몇 가지 여쭙고자 한다. 정 선생님이 지적했듯이 김만덕은 분명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 아니 남녀를 초월한 모든 사람들의 한 역할 모델이자, 제주가 갖고 있는 중요한 역사적 콘텐츠의 자원임에 틀림없다. 달리말해 김만덕 자체 캐릭터에 상품성이 있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물적 인적 자원을 투자해야한다. 자칫 투자만 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제주처럼 섬이라는 불리한 입지 조건 속에서는 실패할 확률도 크다. 1998년과 2001년에 개최된 ‘제주세계섬문화축제’인 경우가 그러한 예이다.

그래서 본 토론자는 김만덕 콘텐츠도 거창한 콘텐츠 보다는 소박하지만 생명력이 있는, 김만덕의 정신과 뜻을 계승할 수 있는, 지속화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 김만덕을 너무 영웅화해서는 안되고 김만덕의 정신과 뜻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콘텐츠 개발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 선생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정 선생님께서는 또 김만덕 콘텐츠 속에 굴이나 전복 갈치 등 제주의 특산물을 적절히 삽입하여 무의식중에 홍보를 함으로써 판매를 촉진하겠다는 전략도 세우고 있다. 또한 비둘기 젓가락이나 김만덕 캐릭터를 활용한 신상품 개발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제주도민의 고용창출이나 소득증대에고 기여한다고 했는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가 될 지도 궁금하다.

또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인 새여서 ‘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에 맞아 비둘기 젓가락 개발을 염두해 두는지 모르지만 저 젓가락을 개발할 생각이라면 개인적으로는 비둘기 젓가락보다는 제주의 상징 새인 오색딱따구리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제주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정 선생님의 견해도 듣고 싶다.

끝으로 이번 학술발표회를 통하여 김만덕의 업적과 정신 등이 제대로 조명되고 계승, 발전되는 한편 제주도민들의 바람인 새 화폐 인물에 반드시 김만덕이 도안될

수 있길 기대한다.

김만덕은 경제인으로서, 경제인이 가져야 할 덕목을 갖추고 국가와 백성을 위할 줄 아는 진정한 경제인으로서, 시대를 뛰어넘은 혜안을 가진 인물이라는 점에서도 자본주의 사회의 화폐 인물로 적합하다고 생각한다.